

3월 MARKET INDEX		
코스피	-46.19	2,706.97
코스닥	-11.63	879.96
환율(원/달러)	-3.2	1,348.90

에너지경제

3월 ENERGY INDEX		
휘발유(원/리터)	1647.36	▲ (+1.39)
경유(원/리터)	1539.79	▼ (-0.33)
LPG(원/리터)	970.07	▲ (+0.09)
(전국 평균)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픈넷		
WTI(달러, 2월)	85.27	▲ (+0.12)

제3495호

1989년 5월 26일 창간 35 2024년 4월 4일 목요일

www.ekn.kr

사우디 9.6조 수주 잭팟...‘정상외교’ 결실

〈파딜리 가스플랜트 증설〉

삼성E&A(전 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따내 올해 해외건설 첫 대형 수주 낭보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 400억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아람코 측과 각각 60억 달러(약 8조원), 12억 2000만달러(약 1조 6000억원) 등 총72억2000만달러(약 9조 6000억원)의 사우디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현대건설이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약 6조 7000억원)를 넘어 한국 기업 사우디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UAE 바라카 원전(191억 달러)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77억 달러) 이어 세번째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북동쪽 350km에 위치한 기존 파딜리 가스 플랜트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또 사우디 동부 주베일 시에서 약 80km 떨어진 파딜리 유전 지역 공단 내 운영 중인 기존 파딜리 가스플랜트의 용량 확대를 위한 발주공사이기도 하다.

삼성E&A는 이 공사 중 패키지 1번과 4번을 약 60억 달러(약 8조원)에 수주했

삼성E&A·GS건설, 아람코와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 계약
韓기업 수주 ‘역대 최대’ 규모...UAE·이라크 건설 이어 세번째 규모
대통령실 “윤 대통령, 건설·인프라 협력 성과”...올 수주목표 청신호



사우디 파딜리 가스플랜트 공단 전경

다. 이는 삼성E&A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GS건설도 프로그램 패키지 2번을 약 12억 2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에 수주했다.

먼저 삼성E&A가 수주한 패키지 1번은 가스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4번은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을 짓는 공사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하루 가스 처리량은 기존 25억 입방피트(2500 MMSCF D)에서 38억 입방피트(3800 MMSCF D)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E&A는 이날 ‘파딜

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패키지 1번과 4번)’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현재 삼성E&A는 사우디에서 자푸라 가스처리, 우나이저 가스저장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이번 수주로 사우디 대표 가스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게 됐다. 사우디는 최근 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가스 플랜트 건설에 지속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수주를 계기로 다른 공사를 연계적으로 따낼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삼성E&A 관계자는 “아람코와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지 네트워크와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모듈화, 설계 자동화 등 회사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차별화 수행체계를 적용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가 따낸 패키지 2번 공사는 하루 800t 규모의 황을 회수할 수 있는 황 회수시설 3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설계와 구매, 시공, 시운전 지원까지 프로젝트 전 영역에 걸쳐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전날 사우디 알코바에서 허용훈 GS건설 대표와 사우디

아람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했다. 황회수처리시설은 가스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고도화 설비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50여년간 국내에서 쌓아온 다양한 건설 역량과 다수 해외 EPC 플랜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오랜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해온 플랜트사업의 내실강화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수주 소식을 전해진 후 보도자료를 내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방문 등을 언급하며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000만달러의 2배를 넘는 127억2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공기업·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 받는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확대 운영
대학별 교수 증원 수요도 검토
윤 대통령, 전문의 대화 제안에 의협 비대위 “생방송 토론회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 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병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문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대상 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도 받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 채용을 자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전공의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하더라도 생방송 토론회로 해야 한다”, “밀실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충분히 소통할 창구와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에 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도 있었다.

수련병원 교수들도 ‘국가의 대표’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련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에서 각하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푸바오 잘가~”...1354일만에 이별 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첫번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3일 중국으로 떠났다.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생활한 지 1354일 만이다. 푸바오는 앞으로 쓰촨성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 위롱 선수급 기지에서 생활하게 된다. 푸바오 배웅 현장에는 평일 오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6000명의 팬들이 찾아 푸바오 뒷발을 흔들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푸바오의 앞발을 응원했다. <관련기사 13편>

황민

‘强달러’ 연중 최고...기준금리 인하까지 ‘고공행진’

원·달러 환율이 지난 2일 1350원선을 넘어서며 강(强)달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반면, 유로존 등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강달러 흐름을 올해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2원(-0.24%) 내린 1348.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인 지난 2일에는 전날보다 2.7원 오른 1352.10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한 건 지난해 11월 1일(1357.30원) 이후 5개월 만이다.

달러화 강세(원화 약세) 원인은 미국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

환율 1352.10원 찍고 숭고르기
엔화도 달러 당 150엔서 ‘정체’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 확대 영향
유로존 금리인하론도 상승 압력

간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6~7회의 금리 인하할 것이라 기대감을 가져왔으나 현재 3회까지 후퇴한 상태다.

또한 독일의 3월 물가상승률이 2.2%로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화 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점도 달러화 수요를 높이고 있다. 통상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대국 대비 높게 형성돼 있으면 미국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률이 더 높아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다.

강달러 현상으로 엔화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당 152엔으로 3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가 2일 151.56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는 3월 19일 달러당 150.68엔을 기록하며 150엔에 재진입했고, 다음날인 20일에는 151.66엔을 기록하며 151엔 선에 안착했다.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151엔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전까지 달러화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강달러 압력이 우세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7월을 시작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개시되면서 하반기에는 달러인덱스 하락세가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미국 경기 및 높은 금리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달러인덱스는 90포인트대 후반의 높은 수준에서 하단이 제한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4분기 평균 1280원까지 상고하

저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엔화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노스 밤바키디스뱅크오브아메리카(BoA) 10개국 통화전망집장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엔화도 달러당 16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예찬 삼성인증권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수출 경쟁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어느 정도의 엔저를 용인할 유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과 같이 152엔에서 상단만 제어하려는 소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인 엔화 가치의 방향성은 강세가 맞으나 그 시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구체화되는 2분기 말로 예상되며 2분기 이후 엔화의 점진적 강세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삼전 팔고 어디 넣을까...고민 깊어진 개미들

8만전자 안착, 개인 누적 매매도 3조
투자자예탁금 1년10개월 만 최대
차익실현 했는데...투자처 고민 ↑
소매·유통업종·IPO 청약 몰릴 듯

삼성전자가 8만전자에 안착한 가운데 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8만전자 진입과 동시에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면서 차익실현에 나섰지만 다음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다. 이에 증시대기자금이 투자자예탁금도 1년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9조62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6월 6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10개월여 만에 최대치이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29일 56조5229억원이던 예탁금 규모는 하루 만에 3조1069억원(5.5%)이 급증했다.

투자자예탁금이 단숨에 3조원 넘게 늘어난 데는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발 반도체 흉풍에 올해 실적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말부터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한 달 새 12.7% 상승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삼성전자가 장중 8만100원에 거래되는 등 ‘꿈의 8만전자’에 진입하자마자 개인은 삼성전자를 6419억원어치 순매도해 차익실현에 나섰다. 삼성전자 주가가 8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28일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이에 개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다. 개인의 삼성전자 6거래일 누적 순매도 규모는 약 2조9900억원에 달한다. 일주일 동안 3조원 가까이 팔아치운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최고가인 8만5000원을 기록한 지난 2일 개

인은 삼성전자를 하루 동안 9343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 순매도로 자금을 확보했지만 다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망설이는 분위기다. 투자처 후보로는 기업공개(IPO) 시장 또는 약세를 지속해온 업종 등이 언급된다.

우선 통상 투자자예탁금은 대어급 공모주가 등장할 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기업공개(IPO)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흥행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은 올 상반기 IPO 최대 자예탁금도 1년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오는 25~26일 일반정약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이달 중 청약을 진행하는 제일약품엔스, 민테코 등도 기대주로 꼽힌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소매·유통 등 경기민감주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시각도 나온다.

신화학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 초 증시 상승을 견인하던 AI 반도체와 밸류업 정책 모델템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며 “오는 10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밸류업 모델템은 이미 소진됐고 단기 조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반도체 섹터는 상승을 견인하던 SK하이닉스 등 주도 기업의 강세가 주춤해지고 있어 AI반도체 모델템 역시 후반부에 다가왔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역으로 기관 수급이 빈집 상태인 종목을 유망 투자 후보로 선별할 수 있다”며 “견조한 실적 컨센서스와 달리 시장 대비 부진한 수익률과 기관 매매도가 높았던 소매·유통 섹터가 순환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영 기자 giryeong@ekn.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적분할 추진...항공우주·방산 ‘경쟁력 ↑’

내일 이사회 상정...한화정밀기계·한화비전 등 신설법인 포함 전방 주주가치·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한화그룹 3형제 승계구도 뚜렷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사업과 비주력사업을 나누는 형태의 인적분할을 추진한다. 주주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적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오는 5일 열리는 이사회에 인적분할 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이번 분할은 한화정밀기계와 한화비전을 비롯한 회사가 신설법인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한화시스템 등 항공우주 및 방산부문은 존속법인에 남는 방식이다. 업계는 한화그룹 승계구도가 더욱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방산·항공우주·에너지,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 김동선 한화로보틱스 부사장은 유동·로봇 사업을 맡는 구도가 명확해진다는 논리

다. 실제로 한화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화 일부 사업을 김 부회장의 ‘영역’에 있는 계열사로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구조개편을 결의했다. 한화오션은 ㈜한화 건설부문 해상풍력 사업과 글로벌부문 플랜트 사업을 양수한다. 한화솔루션은 ㈜한화 모멘텀부문의 태양광 장비사업을 인수한다. 이같은 안건은 5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7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분할 및 구조개편을 계기로 글로벌 방산 시장 내 입지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까지 1만대에 달하는 항공엔진을 출하했고 정부와 함께 KF-21 등 국산 전투기에 탑재될 기본 추력 1만5000파운드급 엔진도 국산화하고 있다.



‘WDS 2024’ 내 한화 부스

폴란드항공 K-9 2차 계약을 비롯해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 ‘1인자’ 지위도 수성 중으로 미 육군의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에도 출사표를 냈다.

한화시스템은 KF-21 전자주사식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최초 양산에 돌입한다. 다기능레이더(MFR) 등을 앞세워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다. 폴란드·캐나다항 잠수함수출을 타진 중인 한화오션은 호주 오스탈 인수로 합정사업 영토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오스탈은 호주와 미국에 조선 시설을 보유한 업체다.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정부와 전략적 조선 계약을 위한 초기 계약도 맺었다.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면 상륙함과 순찰정을 호주군에 인도하게 된다. 우주사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김승연 회장이 5년 만에 나선 현장 경영 장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를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화그룹의 우주사업 통합브랜드 ‘스페이스브’를 총괄하는 김 부회장도 동행했다. 김 회장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 단독협

상사 선정을 축하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할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도 당부했다. 한화그룹은 지금까지 우주사업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 순천 울촌 산단에서 발사체 제작센터도 착공했다. 중대형 발사체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했던 회사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화비전은 지난해 매출 1조538억원·영업이익 1371억원을 시현했다. 북미 뿐 아니라 유럽 CCTV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한 덕분이다. 한화정밀기계도 기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LED 집마운터 사업에 ㈜한화 모멘텀부문의 반도체 전공정 사업을 더해 종합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인적분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경호 기자 spero1225@ekn.kr



르노코리아가 3일 국내 최초로 공개한 세닉 E-Tech 차량 이미지.

르노코리아, 韓 공략법 수정 ‘새출발’

사명·엠블럼 바꾸고 마케팅 전개... ‘프랑스 차’ 이미지 강화
신형 SUV 6월 공개...내년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출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한국 공략법을 수정한다.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프랑스 차’ 이미지를 강화하고 유럽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친환경 차량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판매 중인 차량의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르노코리아는 3일 서울 성수동 ‘르노 성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엠블럼을 태풍의 눈에서 다이아몬드 형상의 ‘로장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명 또한 기존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로 바꾼다. 125년 역사의 프랑스 브랜드 ‘르노’의 가치를 국내 고객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XM3는 유럽식인 ‘뉴 르노 아르카나’로 새롭게 내놓는다. 스테디셀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의 경우 로장주 엠블럼을 적용해 ‘뉴 르노 QM6’로 판매한다. 르노코리아는 브랜드 전략도 수정해 고객과 접점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렉트로 팝’ (Electro Pop)으로 이름 붙인 전략을 구사해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구체적으로 전동화, 커넥티비티, 안전성 등을 주로 홍보한다. 르노코리아는 앞서 부산공장에 향후 3년간 118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인력 200명을 고용한다고 선언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을 위한 설비 교체 비용이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국내 고객들도 글로벌 르노 브랜드만의 차량과 서비스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다”며 “르노코리아가 보유한 뛰어난 생산 및 연구개발 자산을 바탕으로 르노의 DNA에 한국의 역량을 더하겠다. 우리는 이를 ‘프랑스 생, 한국 산’ (Born France, Made in Korea)이란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날 향후 신차 출시 일정도 공

유했다. 새롭게 탄생하는 하이브리드 중형 SUV는 올해 하반기 국내에 데뷔한다. 이에 앞서 올 6월 열리는 ‘2024 부산 엑스포’에서 실차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국내 생산 모델과 수입 모델을 함께 운용하며 매년 한 대의 신차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르노 성수에서 국내에 첫 공개된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의 경우 내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세닉 E-Tech는 지난 2월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22개국 58명의 심사위원 평가로 최고 영예인 ‘2024 올해의 차’를 수상했다. 르노코리아는 이번 전략 발표와 함께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르노 성수를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기본으로 카페, 팝업스토어, 아이템 판매 등 다양한 고객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콘셉트로 구성했다. 르노 성수는 1995년 건립된 기존 건물 1층과 2층 전체를 르노의 새로운 글로벌 마케팅 표준에 맞게 조성했다. 프랑스 르노 본사 디자인팀이 참여해 르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반영토록 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바자렐리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패턴을 외관 디자인에 담았다. 이날 간담회를 위해 방한한 아르노 벨로니 르노 브랜드 마케팅 총괄 부사장은 “르노는 프랑스의 디자인 감성과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 혁신적인 전동화 모델들을 통해 한국 고객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이코 성수동에 르노의 개성 넘치는 DNA를 표현한 플래그십 스토어가 그 비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르노는 언제나 ‘사랑’을 상징해온 브랜드였으며 이 공간은 성수 지역 최초의 ‘카 러버’ (Car Lover)를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백약이 무효”... 건설 규제 풀어도 공사비가 발목 잡아

2월 건설공사비지수 전년비 2.5% 상승...3년 전보다 24% ↑
공사비 상승→착공지연→공급불가→집값 상승 ‘악순환 지속’
민간공사 공사비 급등 해결 안돼...국토부 “조정위 개정 중”



서울 재개발 건설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49% 줄었다. 공공은 21% 줄었고, 민간은 무려 51.7%나 감소했다. 공사비 급등 원인에는 원자재값 급등에 의한 건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이 꼽히고 있다. 철근은 착공이 줄어들다 보니 수요 부족으로 가격이 그나마 떨어졌지만, 시멘트는 제조원가 3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에 오름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레미콘도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지역 공급 가격이 5.6%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 상승도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일반공사 임금은 평균 22만3499원에서 지난해 9월 25만 8359원으로 15.5% 늘었다. 주택건설업 B대표는 “공사비는 하방경직성이 없어 늘 우상향인데, 정부가 높아지는 분양가를 걱정하며 제대로 보전을 안 해주니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는게 살아 남는 길”이라며 “미분양 우려가 크다 보니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다. 그러다 보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나중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공사비 현실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공공 공사에 한해서다. 공공공사는 직접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요율도 상향했으며, 물가 상승분을 최대한 담아 공사비를 책정토록 했다. 또 LH 등이 관리하

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전년 대비 약 15% 정도 공사비를 상향했다. 문제는 민간공사다.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지만 별다른 성과 사례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대우건설만 하더라도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건축 공사를 중단할 상황에 놓여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정부의 중재가 의미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4월 위기를 일축하고 있지만 시공능력평가 50위 밑으로는 이미 많이 몰려있어 정부의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나마 최근 나온 대책으로 인해 향후 사업할 건설사는 좋아하겠지만 이미 몰려있는 업체들에겐 급리인하, 규제(제로에너지, 충전소 등) 유예, 신속한 공사비 갈등조정 등 좀 더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공사 분쟁을 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위탁하는 개정안 법안을 상반기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건설분쟁조정위가 개정되면 좀 더 체계적인 공사비 갈등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1분기 재계 총수 40명 주식재산 3조원 ↑...이재용, 16조 넘어 1위”

CX0연구소, 40개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박정원 두산 회장 1분기에만 주식가치 70% 가까이 올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 넘게 감소해 ‘희비 엇갈려’

을 상회했다. 나머지 18명의 주식재산은 1조2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이 기간 박정원 두산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212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뛰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식재산도 올 1분기에 37.5% 정도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의 올해 초 주식평가액은 1조1995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말에는 1조6489억원을 넘겼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의 주식재산도 올 1분기에만 26.1% 수준 늘었다. 장 의장의 보유 주식은 1조5415억원에서 1조9446억원으로 달라졌다. 이밖에 구자은 LS 회장이 1277억원에서 1552억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292억원에서 2689억원으로 재산이 늘었다. 순위는 이재용 회장(16조

40개 그룹 중 올 1분기 기준 주식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던 총수는 이재용 회장이었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1조7191억원 이상 많아졌다. 조원태 회장은 올해 초 3024억원에서 지난달 말 2302억원으로 주식 가치가 23.9% 떨어졌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주식평가액도 1조3945억원에서 1조1487억원으로 17.6% 하락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1938억원에서 1626억원, 서경배 아모레 회장은 2조1506억원에서 1조9333억원으로 주식평가액이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조사 대상 40개 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 1조원 클럽에는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와 동일할 숫자다. 순위는 이재용 회장(16조

5864억원)이 1위였다. 서정진 회장(11조614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조6738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어 정의선 현대차 회장(3조8048억원), 이동재 에코프로 전 회장(3조1744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3197억원), 구광모 LG 회장(2조1959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1조9446억원), 서경배 회장(1조9333억원), 이재현 회장(1조6489억원) 순이었다. 오일선 한국CX0연구소 소장은 “올 1분기 기준 40개 그룹 총수의 주식가치는 상승했지만, 총수들이 보유한 130여개나 되는 주식종목 중 주가가 오른 곳보다 내린 곳이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며 “올 초반 주가는 분위기는 지난해 드리웠던 먹구름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햇빛이 구름에 다소 가리워진 상황이라서 대장주들의 올 상반기 추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현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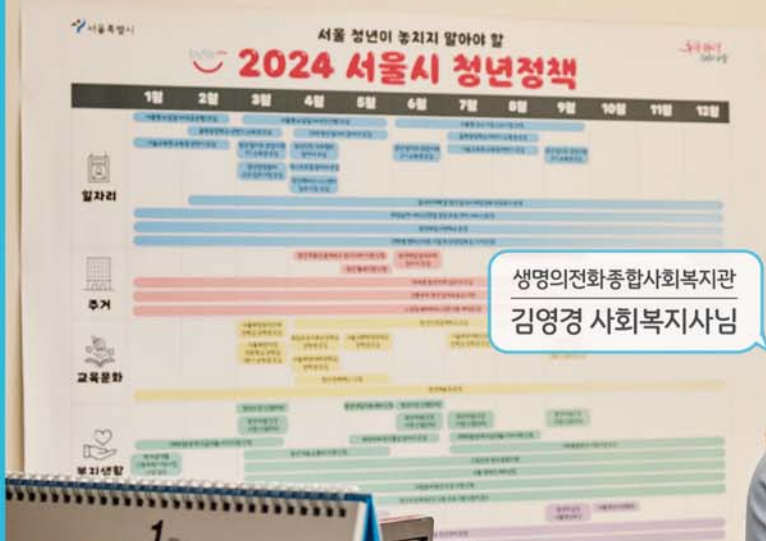
1705명의 행복 파트너

신한은 압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소외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필요한 도움의 손길은 무엇인지
언제나 의미 있는 고민을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따뜻한 노력을 알기에

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사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당신과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김영경 사회복지사님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이수현 사회복지사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 전국 사회복지관 211개소 1,705명의 취약계층 지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재선 전재수 vs 5선 서병수... ‘현역의원 혈투’



부산 북갑 선거구에 출마한 전재수(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서병수(오른쪽)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충선격전지, 이곳

〈부산 북갑〉

부산 북갑갑 지역은 낙동강 벨트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낙동강 벨트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에서 진보 정당 지지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수 정당과 박빙 대결양상이 나타나거나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되기도 하는 곳이다.

특히 부산 북갑 지역구는 최근 선거구 획정 변동으로 부산 북·강서갑에서 분구가 이뤄지면서 앞을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진 곳으로 분류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역구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이번에도 북갑 출마로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을 지냈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과 진구갑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중진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전락공전했다.

부산·경남(PK)은 보수 텃밭으로 여겨졌지만, 낙동강 벨트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협치가 꼽힌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북구(갑·을), 강서구, 사하구(갑·을), 사상구와 경남 김해시(갑·을) 및 양산시(갑·을) 등 10개 선거구 지역을 가리킨다.

이번 총선에선 부산 북·강서 선거구가 기존 2곳(갑·을)에서 3곳(북구 갑·을 및 강서구)으로 쪼개져 낙동강벨트 선거구도 기존 9곳에서 10곳으로 늘었다. 그만큼 전선이 확대된 셈이다.

과거 북·강서갑 지역구는 보수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인식됐다. 1996년부터 보수 정당 출신인 정형근 전 의원이 3차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부산 북갑 지역구 주요 출선 출마자

후보	전재수(민주당)	서병수(국민의힘)
출생	1971년(경남 의령)	1952년(경남 울산)
학력	동국대 역사교육과	서강대 경제학과
주요 경력	-제20·21대 국회의원 -참여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 국정상황실 행정관 -민주연구원 이사	-제16·19·21대 국회의원 -제12대 해운대구청장 -제36대 부산광역시청장
주요 공약	-경부선 철도지하화 숲길, 금빛노을강변공원 조성 -간동나루길리버파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KTX 고속철도 가덕신공항 연결 -덕천역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완공	-경부선 철도지하화 KTX 노선 구포, 김해공항, 가덕도 공항 연결 -덕천 복합환승지구 관광형 소평타운 조성 -화명생태공원 테마공원으로 조성 -스노조크롬레스 건립

田, 지역 현역 강점 앞세워 ‘랜드마크 만들기’ 선거 운동 나서
徐, 집권당 ‘철도 지하화’ 추진 통해 구포역 교통 요충지 공약

박민식 전 의원이 2차례 이기면서 보수 정당이 5연승을 거뒀다.

20년 간 이어져온 ‘보수 텃밭’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때부터 진보로 변화했다. 전재수 의원이 박 전 의원을 11.85%포인트 격차로 이긴 것이다. 다음 제20대 총선에서도 전 의원은 박 전 의원을 2.01%포인트 차로 이기며 지역 수성에 성공했다.

두 차례 지역구 현역을 지낸 전재수 후보는 북구에서만 6번째 선거에 도전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2 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내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전 후보가 현재의 재선 의원 자리에 오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 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제18~19대 총선 때 부산 북갑 선거구에서 패배했다. 제20대 총선 때 4수 끝에 금배지를 단 것이다. 북구에서 한 우물만 판지 18년이 된 전 후보는 지역 사정에 대해 꿰고 있다고 자부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의원을 내세우면서 지역구 탈환에 사활을 걸었다. 서 후보는 국회의원 5선에 부산해운대구청장, 부산광역시청장 등을 지내 풍부한

한 의정활동과 행정경험을 겸비했다.

그는 부산시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집행하고,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 인물로 북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 후보는 현재 북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덕~초읍 터널,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도로, 금빛노을브릿지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자신의 부산시장 시절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당의 협치 출마요구를 전격 수용해 현역인 전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역 국회의원 간의 맞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두 후보는 서로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없이 오로지 공약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다짐했다.

전 후보는 8년간 지역을 누빈 현역 일꾼임을 내세우며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전 후보는 우선 ‘경부선 철도지하화 숲길’과 ‘금빛노을강변공원’을 만들어 ‘새로운 랜드마크’ 만들기를 핵심 공약으로 앞세웠다. 여기에 ‘간동나루길 리버워크’와 수영장을 포함한 북구 복합 문화체육센터 등 문화·복지 인프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KTX 고

속철도를 구포역을 지나서 김해공항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켜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덕천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완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여당 후보의 정책 집행력과 부산시장을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선거 운동에 나섰다.

서 후보는 고속철도 연결 사업을 메인 공약으로 내세워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KTX 노선을 당겨 구포역, 김해공항, 가덕도공항을 지나게 해 구포역이 부산의 교통 요충지로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덕천역 일대에 조성될 복합환승지구를 관광형 소평타운으로 만들고 화명 생태공원 인근 부지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낙동강 관광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를 건립하고, ‘북구 글로벌 빌리지’ 조성을 통해 북구를 영어도서관과 체험시설을 갖춘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면서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업체 피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6~30일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40.2%)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전 후보는 47.8%, 서 후보는 32.6%의 지지율을 얻었다.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밖인 15.2% 포인트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

박상욱 수석 “삭감 예산 복원 아나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뀌탈 것”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뀌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 반발을 부른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뒤흔드는 마이크로 교재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자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랫폼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출생·고령화에 맞춰 지방자치제도 개선”

행안부 ‘지방자치 발전 방향’ 용역

정부가 헌행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헌행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인프라, 선거구, 교부세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된 사회 근간으로 인식돼왔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기 전 우리의 미래상을 예상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주년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인 2025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 감소’ 시대에 주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이에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지자체 모습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미래상을 시뮬레이션한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주민 수 및 고령인구 비율, 외국인 수, 학교 및 의료기관·대중교통 현황 등을 자세히 묘사해 미래 지자체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려낸다.

아울러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주민 수, 복지·문화 인프라의 신설·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등 지자체 최소 행정수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도 예측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 향상과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 지자체 운영방안을 설계한다.

김중환 기자 axkjh@ekn.kr

복지TV

장애인신문

윌페어뉴스
Welfarenews.net

복지 TV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송출되는 사회복지 전문방송입니다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와 권리행사.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계 전문지 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며, 심도 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작년 선제적 총당금 적립에 순이익 후퇴

새마을금고중앙회, 올해 흑자 전환 노린다

흑자 행진 이어오다

작년 2500억9909만원 적자

PF부실 선제적 대응 위해

대손충당금 7837억, 2.3배 ↑

이자비용 2조4979억 2.8배 ↑

기업대출연체율·PF 변수

“선제적 총당금 쌓기로

올해는 충분히 수익 날것”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흑자 행진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총당금과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순이익이 줄었다.

지난해 보수적으로 비용 부담을 감수한 만큼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중앙회는 전망한다.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2500억9909만원의 적자를 냈다. 중앙회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경영공시를 시작한 2014년 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후 처음이다. 2022년 중앙회는 4667억 5394만원의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는데, 전년에는 이보다 약 7200억원 순이익이 감소했다.

중앙회 순이익이 크게 후퇴한 것은 지난해 총당금 규모가 늘어난 데다 이자비용 등 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난해 대손충

당금 규모는 약 7837억원으로, 전년(약 3410억원)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발생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총당금을 쌓았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비용 부담도 크게 늘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신용·공제·카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회의 사업비용은 8조 414억원으로, 전년(5조2726억원) 대비 52% 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난해 사업수익(7조7889억원)도 전년(5조

9502억원) 대비 약 31% 늘었는데 사업비용 증가율이 사업수익 증가율보다 컸다. 사업외수익을 포함한 중앙회의 총수익은 7조8088억원을 기록했는데, 사업외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8조원을 넘어서며 적자 전환했다.

특히 이자비용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중앙회의 이자비용은 2조4979억원으로, 전년(8952억원) 대비 2.8배나

증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3%대로 높아지면서 조달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총당금을 충분히 적립한 것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 만큼 올해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단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PF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도 있다는 점은 변수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8%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예금보험공사, 중앙회는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감사에 들어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부동산 PF 등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진 만큼 총당금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에는 선제적으로 총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주현 “주택연금, 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금융위원장〉

주택연금공사 방문…“가입대상 확대,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실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을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수령 가능하게 하고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현장을 둘러본 뒤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이용자 등 관련기관 및 관계자들과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된 상황에서 주택연금 등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올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대형 상품은 일반형 상품보다 연금액이 최대 20% 더 많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올해 상반기 중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준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한편,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는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해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모두 12조5000억원의 주택연금을 지급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임기중산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또는 연금 가입자의 유류담보부담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등 운용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가입이 어려웠던 14만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고 지난 2월까지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 정부가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16.1% 늘어났다. 박경현 기자

이병래 “저출생·고령화 직면…시니어·어린이 상품 개선”

〈손해보험협회장〉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4대 핵심전략·8개 중점과제 수립 추진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글로벌 경기 불안 등 시장 상황 기민하게 대응해야”

고령자 유병력자 실손 개편 추진…청년·어린이 친화 서비스·상품 도입

손해보험협회가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대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디지털 혁신 등을 골자로 한 4대 핵심전략과 8개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산업의 보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추진 방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유례없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저성장 우려 및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율러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전 등 날이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추진할 핵심전

략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선제적 상품 전략 수립에 나선다. 이를 위한 과제로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 추진을 포함해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착수한다. 또한 저출생 등 사회변화에 대응을 위해 보험상품 강화에 나서 실손보험 저출생 보장 강화와 청년·어린이 친화 서비스·상품을 도입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보험서비스 혁신에도 나선다. 데이터 기반 보험 상품과 서비스의 고도화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산업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디지털 활용에도 나설 방침으로, 현재 시행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자화의 안정적 시행의 지원에도 나선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상태다.

미래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에서는 이미징 리스크 보장을 확대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기후지수·가상자산·비대면 금융사고 보장 보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자동차(Lv4) 상용화를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과잉의료 체질개선을 위한 보장구조 확립도 과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하는 한편 자가격리보험 보장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중심의 보험서비스 확립과 신뢰 제고라는 전략을 위해 보험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의 차등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협회 소비자서비스 리본들리에 나서 과실비율조치 등이 가능한 API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수요에 맞춘 판매채널 다각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고령자와 어린이 전용보험 판매채널을 넓히는 한편 플랫폼 기반 임베디드 보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미래에셋생명, 보험사 첫 IRP 수수료 면제

〈개인형 퇴직연금〉

실적형 적립금 운용·자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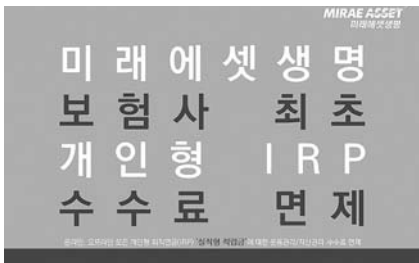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온·오프라인 모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실적형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개인형 IRP 실적형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 고객과 다른 유형을 가입 중인 고객은 미래에셋생명 앱 라이프 앱(M-LIFE App)을 통해 가입 및 변경을 하면 동일한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에 부과하던 최대 연 0.5% 수준의 수수료 면제로 DC·IRP 실적형 적립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연금 글로벌MVP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더 나은 투자 수익률과 노후 자금 준비의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MVP펀드는 변액보험, 퇴직연금을 통해 판매 중으로 국내 최초 일임형 자산배분 펀드의 원조이다. 글로벌MVP펀드 시리즈의 순자산은 약 4조원, 플레



그십 펀드 글로벌MVP60의 누적수익률은 77.9%(지난 3월 29일기준, 생명보험협회 공식시)다. 개인형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IS A 계좌 만기금액 및 55세이후 연금저축 계좌 이전을 통한 꾸준한 자산 증식, 안

향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어 “현대카드는 시장점유율, 회원수, 자기자본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시장 내 상위권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특히 PLCC 확대, 애플페이 국내 최초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회원 기반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율러 현대카드가 우수한 리스크 관리와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카드는 선제적 관리와 바람직한 신용등급을 위한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꾸준히 이익

현대카드, 나이스신용등급 ‘AA+안정적’ 상향

5년만 AA+ 등급 회복…“모회사 현대자동차 장기신용등급 상향 반영”

현대카드는 나이스신용평가가 현대카드의 신용등급을 AA 긍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등급전망이 AA 안정적에서 AA 긍정적으로 상향된 지 4개월 만으로, 5년 만에 AA+ 등급을 회복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카드는 사업 전반에 걸쳐 현대자동차그룹과 연계성이 크고 그룹 내 중요도가 높다”며 “완성차 판매부터 구매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

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현대카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경쟁 지위가 높아지고, 매우 우수한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전망임을 반영해 현대카드의 모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장기신용등급이 높아진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의 신용등급은 같은 날 AA+ 긍정적에서 AAA 안정적으로 상

향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어 “현대카드는 시장점유율, 회원수, 자기자본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시장 내 상위권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특히 PLCC 확대, 애플페이 국내 최초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회원 기반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율러 현대카드가 우수한 리스크 관리와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카드는 선제적 관리와 바람직한 신용등급을 위한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꾸준히 이익

3월 외환보유액 35억달러 ↑ …석달만 증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35억 달러 늘었다. 석 달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4192억5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5억1000만 달러 늘었다.

외환보유액은 미국 달러화 강세로 올해 1월, 2월 연이어 줄었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은 감소했으나, 금융기외 화외예수금과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 전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제·회사채 등 유가증권(3648억9000만 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 달러)이 46억3000만 달러, 3억6000만 달러 각각 줄었다.

반대로 예치금(305억3000만 달러)은 87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월 말 기준(4157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송두리 기자

한미·KT&G·JB금융·이화전기 ‘박빙’...‘주총 드라마’ 썼다

에너지x액트

2024 주총리뷰

소액주주 운동과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거세지며 올해 주주총회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일부 종목은 주주연대의 지분율이 최대주주를 뒤흔들기도 했다. 상황을 대치하는 데도는 종목마다 온도차가 컸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난 달 주주총회를 집중 취재한 에너지경제 자본시장부는 주총의 양태 △성과 △결과 등을 중심으로 주주총회를 되짚어보고, 커지는 주주연대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대해 의미를 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올해 주주총회는 유독 팽팽한 접전을 벌인 종목들이 많았다. 행동주의펀드, 주주연대 등이 백기사로 나서 2대 주주의 부족한 지분율을 채워주다 보니 주주총회 시점에는 지분율이 엇비슷해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불리 예측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상당했다. 일부 기업에는 집중투표제란 변수도 있었다.

지분 싸움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주총

역전에 역전에 역전...숨 막혔던 한미사이언스 주총
KT&G·JB금융, 집중투표제...선진 거버넌스 ‘입증’
이화전기는 주주연대 김현 대표가 표대결서 ‘석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왼쪽 두번째)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은 한미사이언스다. 캐스팅보트들의 투표 방향이 결정되며 전세는 역전에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다. 한미그룹은 지난 1월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 여동생인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이하 모녀측)과 장남 임종윤 한미그룹 이사, 차남 임종훈 한미그룹 이사(이하 형제측)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 모녀측이 OCI그룹과 ‘공동경영’을 발표하자, 형제측은 이를 반대하며 대립각이 형성된 것이다.

처음에는 모녀측이 우세했다. 모녀측이 31.9%를, 형제측이 28.4%를 보유하고 양측의 지분율은 3.5%p 차이가 났다. 하지만 12.15%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

밀 회장이 형제측을 지지하기로 선언하면서 판세는 형제측으로 기울어졌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신 회장이 형제를 지지한 이후 몇 일이 지나지 않아 7.3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모녀측에 손을 들어주며 다시 모녀측으로 형세가 뒤집힌 것이다.

이때부터 많은 관계자들은 모녀측의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형제측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형제측은 주총 전일 일부 친인척을 우호세력으로 포섭했고, 주주연대의 지지도 함께 이끌어내며 유리한 고지를 재탈환했다.

주총장에서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결과는 모녀측의 완패였다. 임주현 부회

정기주주총회
(금) 이화전기(주)



이화전기 주주총회에서 김현 이화그룹 주주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찬성률 48%로 부결됐고, 형제측은 모두 가결됐다.

KT&G와 JB금융지주는 이번 주주총회 결과, KT&G와 JB금융지주의 이사진에 외부인사가 들어왔다. 양 사 모두 최대주주와 2대 주주 간에 팽팽한 지분 싸움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 사의 표대결은 한미사이언스처럼 한 주라도 찬성표를 더 확보 과정보다 전략적 선택이 더 주목받았다.

집중투표제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자신이 보유한 여러 표를 한 후보에 집중해 투표할 수 있기에 누적투표제로도 불린다. 최대주주가 아닌 소수주 주주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알려

져 있다.

KT&G는 이번 주총에서 2명의 이사를 선임하기에 KT&G 주식은 1주당 2표의 의결권이 있었다. 사측과 최대주주 측이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 보니 어떤 전략을 취해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바뀔 수 있었다. 각 후보마다 1표씩 투표하다가 상대측에서 2표를 집중투표한 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측은 방경만 대표에,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과 행동주의펀드 FCP는 송동환 성공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에 각각 집중했다. 손 교수는 의결권 있는 유호 주식 9129만여 주 중 5660만여 표를 받아 KT&G 이사회에 진입했고, 사장 후보였던 방경만 사장 역시 8409만 표를 얻어 이사에 재선임됐다. 사측의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탈락했다.

JB금융지주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2대 주주인 얼리인파트너스가 지지한 이희송·김기석 사외이사가 주총표 대결에서 김이사와 이이사는 각각 득표 1·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하지만 이사로 선임될 수는 사측이 더 많았다. JB금융이 추천한 사외이사 5명 중 김지섭 김우진 이명상 이희송(얼리인파트너스도 추천) 등 4명이 선임됐다.

주총이 열리기 전 최대주주인 삼양사(지분율 14.61%)와 얼리인(14.04%)의 지분율 차이는 0.6% 포인트에 불과해 팽팽한 결과가 예상됐는데, 표 분산 효과까

지 더해져 JB금융지주의 이사진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꾸러지게 됐다.

이화전기는 이트론, 아이아디와 함께 이화그룹으로 불리는데, 실소유주로 불리는 김영준 회장이 순환출자를 통해 이화그룹 지분 1주도 없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김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하며 이화 3사는 지금까지 거래 정지 중이다.

그러다 보니 주총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및 범 주주연대 대표가 이사진으로 합류되는지 여부였다. 그는 38만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로서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다수의 거래소 집회 △개입투자자 최초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이화전기 1대 주주 등극을 위한 의결권 확보 활동 등 유의미한 이화그룹 주주연대 활동을 이끌었다.

김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도정철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와 사외이사 한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 지난달 15일 양 측의 주식수는 1040만주 가량 차이가 나다 보니 주총 전까지 주주연대는 적어도 1040만주의 찬성을 사측보다 더 얻어야 만 했다. 주주연대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간 중 1040만 주를 웃도는 1258만 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사측 역시 KDM메가힐딩스를 통한 186만 주 등 총 398만 주를 추가 확보, 사측이 280만 주를 앞선 결과가 나왔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반도체·이차전지 약세...코스피 2700선 턱걸이 코스피가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에 나흘 만에 하락해 2700대로 내려앉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테슬라의 1분기 차관 인도 실적이 급감하면서 반도체 관련주와 2차전지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19포인트(1.68%) 하락한 2706.9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63포인트(1.30%) 하락한 879.96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만에 ‘1조 증발’ 카카오...증권가 눈높이 ‘줄하향’

최근 카카오 주가가 연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초 카카오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을 내놔던 증권가도 최근 목표주가를 연달아 하향 조정했다. 올 1분기 카카오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주친화정책 부재와 인적 해산 논란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일 증가 대비 200원(0.39%) 내린 5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카카오 주주들은 연이틀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됐다. 전날 카카오는 5만4000원선을 간신히 지키던 주가가 무너져 하루에만 4.83% 하락, 연내 최저치(5만1000원)를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해 5만1200원에 마감했다. 이날은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오후 하락세가 계속돼 장중 최저가 그대로 종가가 됐다.

카카오는 급락이 있던 전날에만 시가총액 1조1574억원이 증발, 한때 코스피 시총 순위 17위까지 떨어졌다. 이날 대형주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다시 15위에 복귀했지만, 현대모비스(16위) 및 신한지주(17위)와 큰 차이

종가 ‘연중 최저’...전날 5% 가까이 급락 쇼크
증권가 목표가 하향...실적 부진 우려 본격화
주주친화정책 부재 및 인적 해산 논란도 부상

가 나지 않아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증권가에서도 최근 들어 카카오 목표주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카카오 목표주가를 8만2000원으로 제시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7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마찬가지로 키움증권(7만3000원→6만9000원), 삼성증권(7만3000원→6만6000원)도 모두 카카오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다. 이같은 증권가의 부정적인 전망도 전날 카카오의 주가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증권사는 올 1분기 카카오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1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2조1024억원, 영업이익 14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20.80%, 106.73% 확대된 규모다. 그러나 이는 1개월 전 전망치(매출 2조1494억원, 영업이익 1550억원) 대비 줄

어든 수치여서 ‘어닝 쇼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고서를 낸 미래에셋증권은 카카오의 1분기 매출로 1조9000억원, 영업이익 1300억원대로 컨센서스 대비 부진한 예상치를 내놔다. 목표주가를 하향한 다 증권사도 비슷한 관측이다.

오랜 부진에 지친 주주를 달래기 위한 친화정책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는 올해도 제주도에 위치한 본사에서 개최됐다. 카카오 개인주주가 186만명에 달하고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제364조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그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해야 하지만, 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정신아 신임 대표가 배석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주주환원정책이나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주주가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 주총에 참석했다더라도 신임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이다.

앞서 주총 전 일부 증권사에서는 카카오가 별도 기준 약 2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확장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지만, 그 기대를 저버린 결과가 됐다.

최근에는 정 신임 대표가 과거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연루됐던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본사 CTO로 임명 강행해 주가 부양을 위한 인적 해산 의지가 애초에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영진 교체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성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정신아 대표가 이제 갖춰야 할 만큼 현재 주가 부양 방안 등에 대해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규돈 CTO에 대한 구체적인 주주들의 반발은 들어본 적 없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거래소 민영화 9년...ATS 출범 토양 마련

<대체거래소>

공공기관 시절 대비 영업이익 2배 ↑
종목수·시총·거래량 증가 영향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이익 성장세가 눈에 띈다. 거래소의 실적 성장은 지난 2015년 민영화 이후부터 가속화됐다. 공공기관이던 2014년과 현재의 실적을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모두 크게 증가했다. ATS 설립이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의 조건이었던 만큼 거래소의 실적 증가를 두고 ATS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9년 만에 영업이익 204억원→2866억원

3일 한국거래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6453억원의 영업이익(매출)을 거뒀다. 공공기관이던 지난 2014년 거래소의 매출 2828억원과 비교하면 12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866억원으로 2014년 204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303%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은 3257억원으로 이 역시 2014년 456억원과 비교해 613% 증가한 수치다.

거래소의 이 같은 성과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종목 수는 1964개였다. 지난해 말에는 2658개로 35% 증가했다.

거래량과 시가총액 증가는 더 두드러진다. 2014년 1335조3406억원이던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2558조1648억원으로 91% 증가했다.

특히 거래소 수익개선에 큰 영향을 준 거래량이 2014년 1549억9199만주에서 지난해 4057억8841만주로 161% 증가했다. 거래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거래소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면서 ATS의 설립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ATS를 준비 중인 엑스트레이드는 연내 ATS 설립 신청을 한 뒤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ATS는 거래 기능만 가지고 상장회사

와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그대로 한국거래소가 수행할 예정이다.

거래량 증가로 커진 거래소의 수익은 ATS와 나누겠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비용 증가는 제한적...“복수거래소 체계 토대 마련”

한편 거래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과정에서 영업비용은 크게 늘리지 않았다.

2014년 거래소의 영업비용은 2623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3587억원으로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비용 내역을 보면 지난 9년 동안 액수 기준 가장 많이 증가한 계정은 급여다. 거래소는 지난 2014년 798억원을 급여로 지출했고, 지난해에는 1201억원으로 402억원 증가한 급여를 지출했다.

이어 지난해 지급수수료가 2014년 대비 224억원 늘어난 428억원을 기록했고, 전산운영비도 2014년 대비 219억원 증가한 854억원을 썼다.

비용 기준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계정은 차량유지비다. 거래소는 지난 2014년 공공기관이던 시절에는 차량유지비로 2438만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억1504만원으로 781% 증가한 액수를 사용했다.

국제 협력비도 2014년에는 2억908만 원을 사용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491% 증가한 12억3722만원을 썼다.

반면 민영화 지출을 줄인 항목도 있다. 바로 영상연구개발비다. 거래소는 지난 2014년에는 연구개발에 21억1944만 원을 썼지만, 지난해에는 7억2812만 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충실한 시장 지원 덕분에 국내 증시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제 규모가 커진 만큼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복수 거래소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마스턴투자운용 조직개편 단행...섹터 전문성·자산관리 강화

마스턴투자운용이 급변하는 시장과 미래에 대응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국내 프로젝트에 투입된 투자 기준과 동일한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부문 내 ‘Fund Management Committee(FMC)’를 신설했다. FMC는 국내 투자 및 개발사업 전반

에 대한 전략 및 관리 방안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제시하는 컨트론타워다.

홍성혁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주거·오피스·물류의 ‘섹터 별 총괄’ 각 1인이 담당 섹터 프로젝트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 CM(Capital Market), 개발관리, 자산관리, 펀드관리, 리서치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성우창 기자

<LG그룹 회장>

구광모 “기대 넘어선 경험·삶의 변화가 혁신”

‘2024 LG 어워즈’ 참석…고객 감동 대상 4팀 포함 총 98팀 724명 수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기대 넘어선 경험과 삶의 변화가 LG가 추구하는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구 회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2024 LG 어워즈(Awards)’에서 이 같이 말했다. LG 어워즈는 지난 한 해 동안 제품,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격려하고 전파하는 행사다.

현장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고객 심사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실시간 온라인 중계에는 1000여명의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구 회장은 취임 후 경영 화두로 고객가치를 제시하고, 해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LG그룹은 2019년부터 한 해 동안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들어 낸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LG 어워즈’를 운영하고 있다.

구 회장은 “LG 어워즈는 고객들이 차별적 가치를 인정하고 주시는 상”이라며 “수상자분들이 이뤄낸 혁신이 더욱 발전되고 확산돼, 더 많은 고객에게 감동의 경험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라면서 “단지 최초·최고의 기술, 제품,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라 기대를 넘어선 경험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느낄 때 고객은 차별적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강조했다.

LG는 올해 LG 어워즈에서 처음으로 구성원 심사제를 도입했다. 구성원 심사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가치 혁신 사례를 심사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구성원 심사에는 1만여 명이 넘는 구성원들이 참여해 고객가치 혁신 사례를 평가하고 투표했다.

LG는 지난해 고객 심사제를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기존 MZ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던 고객 심사단을 전문가, 주부,



2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수상팀을 축하하며 격려하고 있다

외국인,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 및 직업군으로 늘렸다. MZ 세대뿐 아니라 LG의 제품을 사용하는 다양한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올해 LG 어워즈에서는 최고상인 고객 감동 대상 4팀을 비롯해 고객 만족상 46팀, 고객 공감상 48팀 등 총 98팀, 724명이 수상했다. LG는 출품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별적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철저한 고객의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해 최고상을 선정했다.

LG는 시상식에 참석한 구성원들 각자가 주인공이 돼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오후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연계 행사에서는 스마트홈 AI 에이전트가 가장 먼저 무대에 올라 춤을 추며 수상자들을 환영하고, 사회자와 대화하며 시상식 일정 등을 소개했다. LG전자가 올해 CES에서 처음 선보인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만능 가사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LG는 행사장 내에 ‘알파블(Alpha-able)’과 ‘컴포트 키트(Comfort Kit)’도 전시해 구성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알파블은 LG전자가 올해 초 CES에서 처음 선보인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자동차다. 컴포트 키트는 성별이나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생활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올해 LG 어워즈에서 고객 만족상을 수상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韓조선업계, 분기 수주 136억달러…세계 1위 탈환

전년 동기비 41.4% 증가

국내 조선업계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수주 세계 1위로 돌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분기 선박 수주액이 136억달러로 중국에 앞섰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45.5%에 달하는 수치다.

수주량은 449만표준환산톤수(CGT)로 중국(490만CGT)보다 적지만 고부가 선종을 위주로 비즈니스를 전개한 영향이다.

실제로 올 1분기를 보면 국내 조선소들이 액화천연가스(LNG)선 29척과 암모니아선 20척 전량을 ‘씩쓸어’했다.

3월의 경우 수주량도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상회했다. 선박 수출도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해 데 이어 지난달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민·관이 향후 5년간 9조원을 들여 △



HD현대해상호가 건조한 17만4000㎡급 LNG운반선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외국 인력 도입 등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다.

올 상반기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및 기자재산업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자율운항선박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롯데알미늄, 분할 신설회사 출범…최연수 대표 겸직

롯데인프라셀·패키징솔루션즈 신설

롯데알미늄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적분할을 단행했다. 롯데알미늄은 롯데인프라셀과 롯데패키징솔루션즈가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존속법인의 최연수 대표는 양사의 대표도 겸직한다. 롯데알미늄의 양극박·일반박 사업을 영위하던 배터리 머티리얼(BM) 사업분부는 롯데인프라셀로 분할됐다.

롯데인프라셀은 2차전지소재 기술을 토대로 배터리 생태계의 공간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배터리 소재 전문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캔·연포장·골판지·생활용품·PET병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패키징 머티리얼(PM) 사업분부는 롯데패키징솔루션즈로 분할됐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는 패키징 기술력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패키징 전문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아티팩 및 차별화 제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알미늄은 롯데케미칼과 함께 미국 캔터키주에 양극박 생산기지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를 설립했다.

형거리 터터버너 산업단지에서도 생산공장을 완공한 뒤 2단계 추가 투자자진행 중이며, 올해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나광호 기자

산업

이기동 “독보적 해양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것”

<HD현대마린 대표이사>

HD현대마린, 기자간담회 개최

선박 개조 사업 ‘캐시카우’ 담당

선박 유·무상 서비스도 출범

“친환경 기술 고도화로 시장 선도”

“당사는 신조선 인도 이후 선박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토탈 마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며 “선박 애프터마켓 사업은 HD현대그룹이 건조한 선박과 제작한 엔진의 부품·기술과 무상 보증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D현대 선박 개·보수 전문 자회사 HD현대마린솔루션즈(이하 HD현대마린) 이기동 대표이사가 지난 2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 리서치 센터(GRC)에서 기업공개(IPO)에 앞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기업비전에 대해 말했다.

선박 개조(retrofit)는 운항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내부 하역 작업 효율화와 운항 용도 변경 등을 목적으로 선체 구조나 탑재 기기류를 변경하는 사업이다. 주로 선주로부터 요청을 받아 현존 선박에 대한 △역설계 △재설계 △재설치 △시운전 △승인 재확인증 △공급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HD현대마린은 1세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즈 대표이사(사장, 가운데)가 지난 2일 판교 글로벌 리서치 센터(GRC)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자사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대 환경 규제인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선박 평형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스커러바·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BWTS) 개조 등 수백 척의 친환경 개조 공사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 사장은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선박 개조 사업은 30%대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기반으로 회사의 ‘캐시 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당사는 차세대 운항 기술·빅 데이터 기반 선박 디지털 제어 해양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D현대마린은 2016년 11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엔진기계사업부·전기전자사업부 등 선박 관련 유·무상 서비스

담당 조직을 통합해 ‘현대글로벌서비스’로 출범했다.

2020년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선박 디지털 제어 사업을 양수하는 등 사업 영역이 확대됐고,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4305억원, 2015억원으로 2017년 대비 495.30%, 269.05% 성장했다. 2021년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인정받아 미국 사모 펀드 ‘KKR’의 지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처럼 커져가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당시 사명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회사 내부에서 제기돼 신성장 동력의 확보 의지를 담아 현재 사명으로 바꿨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중장기 전략에 대해 이 사장은 “암모

한중희 “비스포크 AI로 안심 사용 스마트 홈 생태계 조성”

<삼성전자 부회장>

3일 삼성전자는 서초 사옥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연결성과 사용성이 개선된 2024년형 비스포크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날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2019년 비스포크 시리즈를 처음 선보인 이후 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맞춤형 콘셉트를 보편화한 당사는 다양한 스마트폰 기기들을 통해 ‘AI 포 올 비전’을 완성하는 비스포크 AI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운을 폈다.

한 부회장은 “비스포크 AI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보안”이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삼성전자의 엄격한 보안 성능은 UI, 솔루션의 인증을 받았고,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호흡기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먼지와 냄새를 제거할 수

비스포크 AI 신제품 라인업 공개
“AI 접근성 낮춰 사용 경험 ↑”

있는 공기 청정기를 출시해 환경 부담을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개발해 비스포크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노년층의 기기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보편적 접근성이 더욱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회장은 “당사는 시력이 떨어지는 시니어 소비자들과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AI를 개발해 비스포크 사용 경험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가 2024년형 비스포크 신제품 라인업 공개 현장에서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모습.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비를 활용하는 AI 소비자 사용 패턴을 분석해 본연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을 즐기는 데에 개발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효성티앤씨, 베트남서 친환경 신사업 키운다

바이오 BDO 생산공장 건설 승인

안정적 원료 수급으로 생산 효율성 ↑

효성티앤씨가 친환경 신사업 육성을 위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30일 바리우붕 파우성 정부로부터 부탄다이어(BDO)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승인서를 받았다

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소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산 20만t급 바이오 BDO 생산공장을 짓기 위함이다. 효성티앤씨는 2026년 상반기부터 연산 5만t에 달하는 바이오 BDO 생산 및 판매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BDO는 스파텍스 섬유를 만드는 PTMG의 원료 등으로 쓰이는 소재다. 최근에는 △자동차내장재(TPU) △생분해성수지(PBAT) △산업용 컴파운드 등으로 사용처를 넓히고 있다.

바이오 BDO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당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100% 대체한 것도 특징이다.

효성티앤씨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스파텍스 공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원료부터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세계 최초의 일관생산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바리우붕파우성 공장에서 생산된 바이오 BDO를 기반으로 동나이 공장에서 PTMG를 제조하고 바이오 스파텍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나광호 기자

현대차, 전용 파워 트레인 적용 ‘쏘나타 택시’ 출시

전용 LPG 엔진·변속기 장착…축간 거리 넓혀 쾌적한 탑승 경험 제공

현대자동차가 3일 전용 파워트레인과 타이어를 적용한 전용 모델 ‘쏘나타 택시’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신차는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LPG 엔진과 변속기를 장착했다. 넓어진 2열 공간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을 갖춘 게 특징이다.

현대차는 택시의 가혹한 주행 환경을 고려해 일반 차량 대비 약 2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스마트스트림 LPG 2.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넣었다. 타이어도 일반 대비 약 20% 내구성이 강화된 제품을 적용했다. 쏘나타 택시는 기존 모델 대비 축간 거리를 70mm 늘렸다. 이를 통해 더 넓은 2열 공간을 바탕으로 승객에게 보다 쾌적한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쏘나타 택시는 △1열 에어백 △운전석 무릎 에어백 △1·2열 사이드 에어백 △전복 대응 커튼 에어백 등이 포함된 9개 에어백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LF 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자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으로 갖췄다.

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 C(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를 탑재했다.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했다.

쏘나타 택시는 단일 트림으로 운영된다. 선택 사양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니아·수소 이중 연료(DF) 시스템·탄소 포집 시스템 개발을 비롯한 친환경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탈 탄소화 시대에 걸맞는 벅커링 솔루션을 조선·해운 시장에 공급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공지능 리서치에 따르면 SDV 시장은 연 평균 12.2% 성장해 2032년 시장 규모가 약 242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며 “글로벌 조선·해양 빅데이터를 보유한 독보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혁 HD현대마린 최고재무책임자(상무)는 “항공 MRO나 엔지니어링 등 유사 업종 대비 우수한 당사 현금 창출 능력은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감가상각을 최소화 하는 데에 나온다”며 “핵심 사업부를 기반으로 이익률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여진 질의응답 시간에 김 상무는 “IPO 자금은 6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해 국내 중소 설계사 인수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미 해군 MRO에 대해 이 사장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담당하는 영역으로, 별도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며 “당사가 참여한다는 기사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AI 프로세스를 탑재한 LCD 스크린이 패밀리 룸뿐만 아니라 일반 세탁기·오븐 등에 탑재돼 집안 곳곳의 모든 제품들을 이어주고, 터치나 음성으로 편리하게 대화하며 다양한 콘텐츠 중심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성수현 삼성전자 DA 사업부 프로는 “올해 비스포크 AI의 가장 큰 혁신은 AI 흡을 통한 연결 경험”이라며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에어컨이나 로봇 청소기·공기 청정기에 가까이 가면 폰 화면에 리모컨이 나타나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엄철민 삼성전자 DA 사업부 프로는 “냉장고에 보관 중인 줄 몰랐던 식재료를 한참 뒤에 발견해 아깝게 버린 경험이 있을텐데, 비스포크 AI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 출력 순간을 인식해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해준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현대차 쏘나타 택시

(스탑앤고 기능 포함)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전면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으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센스와 1열 통풍시트 두 가지로 단순화했다. 외장 색상에는 △아이시 화이트 △큐레이티드 실버 메탈릭 △팬텀 블랙 중 선택할 수 있다.

현대차 쏘나타 택시의 판매 가격은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 택시 기준 2480만원 △개인택시(간이과세자, 면세) 기준 2254만원부터 시작한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 및 영업용 택시 사업자에 한해 판매한다.

쏘나타 택시는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가 중국에서 제작한다. 계약-출고 과정, A/S 등 구매 제반 사항은 내수 생산 차량과 동일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 택시는 택시 전용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2열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등 특화된 상품성을 갖춘 차량”이라며 “택시 전용 모델로서 차별성을 갖춘 쏘나타 택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현우 기자

곽달원 HK이노엔 대표 재신임…매출 1조 ‘탄력’

케이캡·카나브 내세워 매출 극대화 기대…‘컨디션’ 이을 후속음료 육성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곽달원 HK이노엔 대표가 창립 40주년을 맞은 올해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시대를 연다는 포부다.

3일 HK이노엔에 따르면, 곽달원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사내 이사에 재선임돼 향후 3년간 HK이노엔을 이끌게 됐다.

HK이노엔은 지난해 매출 8289억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해 매출 신기록 행진 중인 경쟁사들에 비해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주들은 곽 대표에게 굳은 신뢰를 보냈다.

이는 매출감소 원인이 한국MSD와의 자경부암백신 ‘가다실’ 공동판매계약 종료 등 외부 상품매출 감소에 있는 반면 주력제품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과 숙취해소제 ‘컨디션’ 등 자체개발 제품 판매는 늘어 매출 감소에도 오히려 내실은 탄탄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K이노엔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25.5% 증가한 6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체 매출 중 약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캡은 매출이 2021년 785억원, 2022년 905억원, 지난해 1195억원으로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같은기간 컨디션 제품군의 매출도 385억원, 607억원, 62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전문의약품(ETC)만 보면, 수익성 높은 자체개발 ETC 제품의 매출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63.0%로 높아진 반면 외부도입 ETC 상품의 비중은 31.5%에서 25.0% 낮아지는 등 수익구조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업계는 1984년 설립돼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HK이노엔이 백신 상품매출 감소에도 올해 1조원에 가까운 매출과 1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HK이노엔은 케이캡의 국내외 매출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산 30호 신약인 케이캡은 차세대 계열인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P-CAB)’ 계열의 약물로, 최근 4년 연속 국내 소화성 궤양 용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보령과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 케이캡과 보령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두 회사가 공동판매하기로 해 매출 극대화를 꾀한다.

케이캡의 해외진출도 중국, 인도네시



곽달원 HK이노엔 대표.

아, 중남미 등 현재 35개국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미국 임상 3상도 마무리해 올해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목표다.

건강음료사업에서는 컨디션의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는 동시에 제로칼로리음료 ‘티로그’ 등 컨디션의 명성을 이을 음료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5~10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4)에서 차세대 비소세포암 치료제 후보물질 ‘IN-119873’의 비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까지 HK이노엔과 케이캡 공동판매를 맡았던 종근당이 올해 초 HK이노엔과의 공동판매 계약 종료 후 대웅제약과 손잡고 이달 1일부터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팩스클루’ 공동판매에 나선 것은 곽달원 대표에게 새로운 도전과제가 됐다.

국산 34호 신약인 대웅제약의 팩스클루 역시 케이캡과 같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현재 케이캡에 이어 국내 시장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종근당과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케이캡이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가져온다는 목표다.

업계는 케이캡의 국내 시장 1위 등극에 HK이노엔과 종근당의 공동판매가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면서 올해 시작된 HK이노엔-보령의 ‘케이캡 동맹’과 대웅제약-종근당의 ‘팩스클루 동맹’ 대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배달의민족, 18일부터 스타벅스 음료 배달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오는 18일부터 스타벅스 커피와 주스·티 등 음료제품을 배달서비스한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앱에 스타벅스코리아의 자체 배달 ‘딜리버스’가 입점해 이달 18일부터 스타벅스 음료제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서 스타벅스가 배달 앱에 입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민에 입점한 딜리버스는 오는 15~17일 사흘간 스타벅스 31개 매장의 시범 운영을 거쳐 배달의 안정성을 확인한 뒤 18일부터 전국 700여개 매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각 매장마다 상이하나, 입점 매장의 딜리버스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배달의민족과 스타벅스는 향후 텀블러, 컵 등 다양한 스타벅스 상품을 배달 판매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배민 스타벅스 배달 서비스 이미지

이번 입점을 기념해 무료 배달 사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앱 내 배너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연고는 우아한형제들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스타벅스와 협력 관계를 넓혀, 많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은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대파1단 65% 쉰 875원 판매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파 1kg(1단)를 시중 소매가보다 65% 쉰 875원에 할인 판매한다.

농협은 대파 1단 가격을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오는 12일까지 연다고 3일 밝혔다.

하나로마트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의 하나로 서울 양재·창동점을 비롯해 수원·고양·성남·청주·울산점 등 7개 매장에서는 진행하던 대파 할인판매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할인판매가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과 농협 자체 할인을 반영한 가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 2일 기준 대파 소매가격인 kg당 평균 2504원과 비교해 하나로마트 판매가격



서울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대파 제품. >=2,120 1,484 <=5,960 2

은 65% 할인된 수준이다.

한편, 농협은 새봄맞이 초특가전에서 대파뿐 아니라 한우불고기, 딸기, 전혜향 등 인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생활용품

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서예은 기자

월마트 잘 되는데 이마트는 왜?

정용진, ‘쇄신 메스’로 성적표 끌어올릴까

〈신세계그룹 회장〉

실적부진 이마트 희망퇴직, 신세계건설 대표도 교체

성과 중심 신상필벌 강조…후속행보·쇄신조치 주목

업계 “이마트 디지털전환 실패, 경영혁신 필요” 지적

신세계그룹 경영 총대를 멘 정용진 회장이 주력사업인 이마트의 실적 부진 타개를 위해 인원 구조조정과 계열사 대표 교체 등 ‘강수’를 선보여 유통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이 실적 저조 임원들은 수시로 평가해 교체하는 ‘신상필벌’ 인사 원칙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정 회장의 향후 행보와 신세계의 인적 쇄신 움직임이 맞물려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전날 신세계건설 정두영 대표를 경질하고, 신입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인사는 정 회장의 승진 이후 그를 차원에서 단행한 첫 쇄신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회장이 신세계건설을 쇄신인사의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건설 계열사가 이마트 실적 부진의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자회사 신세계건설의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적자로 전환(영업손실 469억원)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해당 인사에 대

해 “보통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말 때 인사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기민하게 수시로 인사를 하면서 (실적부진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의 이러한 인적쇄신은 주력사업인 이마트 실적부진에서 기인한다.

이는 미국 할인점 사례와 비교하면 정 반대의 상황이다. 미국 대표 할인점인 월마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장보기 수요가 이후에도 실적상승이 이어지며 주가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월마트는 올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의 총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73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1708억5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이같은 깜짝실적에 월마트는 2월 20일 주가가 장중 사상 최고가(181.35달러)를 세우기도 했다.

한국의 월마트로 불리는 이마트는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마트를 포함한 국내 할인점의 사정이 미국과 다른 원인은 기본적으로 소비행태의 차이에 있다고 풀이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24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효율 풀무원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자 전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통해 “올해 연결기준 풀무원 매출액은 3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865억원으로 전망한다”며 “수익성은 해외 사업부문의 흑자전환에 기인하며 해외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11억원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중국·일본 등 풀무원 해외법인 합산 영업손실은 222억원으로 전년(454억원) 대비 두 배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익성 감소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일본 법인의 적자 폭이 줄면서 흑자



이마트 이미지

미국은 현지 소비자들이 차를 끌고 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을 나들이로 여기는 만큼 엔데믹 이후에도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장보기 수요가 이커머스로 흡수되는 현상이 더 빨라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마트가 대형마트 3사 중 실적이 유독 안 좋은 것은 업종 약화 요인 외에도 사업 확장을 통한 성과가 좋지 않은 점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정 회장이 지마켓(구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마트는 2021년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 3조4000억 원에 인수하

며 온라인 사업에 나섰지만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마켓은 2022년엔 655억원, 지난해엔 32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유통학회 회장 출신인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월마트는 온라인몰(제트닷컴) 인수한 뒤를 옴니채널에 성공해 미국 2위 이커머스 업체가 됐지만, 이마트는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출은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마트가 실적 개선을 위해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비즈니스모델은 앞으로 성장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풀무원, ‘비건&글로벌’ 쌍두마차 타고 매출 4조원 질주

작년 매출 2조9935억원 ‘역대 최고’

해외매출 영업손실↓ 흑자 청신호

식물성식품 매출↑ 지구식단 육성 주력

지난해 연매출 3조원 문턱에서 아쉽게 멈춰선 풀무원이 외연 확장과 내실 성장을 양 날개 삼아 ‘2027년 매출 4조원’ 작록을 노린다.

해외 사업의 실적 개선과 함께 식물성 대체식품 사업 강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적자 폭 줄인 해외사업…캐나다·유럽까지 영역 확장

3일 풀무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매출 4조원 규모의 글로벌 지속가능식품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매출 3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던 증권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으나, 전년 대비 5.5% 늘어난 2조9935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도 크게 끌어올렸다. 2020년 460억원이던 풀무원 영업이익은 이듬해 385억원, 2022년 263억원으로 뒷걸음질 쳤으나 지난해 619억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 중인 해외 사업이 개선세를 띠 영향으로 올해는 흑

◇지속가능식품 규모 키워 전체 외형 확장 노린다

해외 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이끈다면 외형 확장은 식물성 대체식품이 맡는다. 오는 2027년까지 지속가능식품 카테고리 연매출 1조7000억원을 낸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체 식품 매출 중 지속가능식품 매출 비중만 오는 2026년까지 65%로 높일 계획이다.

2021년 3월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을 전명한 풀무원은 이듬해 식물성 지향·건강한 경험·친환경 케어·동물복지 4대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는 등 밀집도 고려해왔다. 그해 8월 출범한 지속가능식품 통합 브랜드 ‘풀무원 지구식단’을 핵심 브랜드로 키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식물성 대체식품과 식물성 영양식품, 식물성 간편식 3개 카테고리로 나눈 풀무원 지구식단은 출시 1년 만에 4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풀무원은 2022년 기준 7~8% 수준인 해당 브랜드 매출 비중을 내년 27%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984년 창립 이래 최초로 지난해 하반기 브랜드 전속모델로 연예인을 기용하는 등 브랜드 띄우기에 한창이다. 지난 1월 가수 이효리를 내세운 ‘풀무원 지구식단’ 브랜드 광고를 공개한 데 이어, 이달부터 개별 제품 신규 광고를 선보이는 등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20 1,484 <=5,960 2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호텔신라, 제주 관광객 공략 ‘레저특화 호텔’ 5월 개장

이호테우 해변에 ‘신라스테이 플러스’ 오픈 3·4성급 가성비로 MZ·가족관광 공략

호텔신라의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MZ세대와 가족 관광객을 공략하기 위해 레저 특화 호텔인 ‘신라스테이 플러스’를 오는 5월 16일 새로 개장한다.

3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신라스테이는 오는 5월 16일 제주도 북서쪽 이호테우 해변 인근에 15번째 신라스테이이자 첫 번째 레저형 호텔인 신라스테이 플러스를 열 예정이다.

신라스테이 플러스는 신라스테이가 레저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라스테이의 레저형 호텔 브랜드다. 기존 신라스테이보다 넓고 다양한 타입의

객실과 야외수영장 등 휴양과 레저를 위한 시설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기존 제주시에 위치한 신라스테이는 비즈니스 고객이 타겟인 만큼 간단한 뷔페 시설과 연회 시설에 집중한 장소였다면, 신라스테이 플러스는 루프탑과 야외 카페, 신라스테이 중 가장 넓은 규모의 야외 수영장 등으로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주에 가족 등 3~4인 여행객이 많이 방문한다는 점을 살려 다인용 객실을 마련하고 2층 침대가 설치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벙커 룸과 카펫 대신 온돌로 바닥을 마감한 온돌룸 등으로 객실 테마와 기능을 다양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가

위치한 해변 인근은 여행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변 중 하나로 MZ세대 여행객의 포토존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파도 형상을 호텔 건물에 접목해 디자인도 강화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호텔신라는 신라스테이 플러스 개장을 통해 제주신라호텔, 신라스테이, 신라스테이 플러스까지 제주도에만 3개의 호텔을 보유하게 됐다. 5성급 특급 호텔인 제주신라호텔과 비즈니스 고객 대상 신라스테이, 중저가 레저 특화 신라스테이 플러스로 다양한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호텔신라가 3·4성급 호텔 출점을 늘려 나가는 것은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호캉스’ 트렌드에 힘입어 호텔은 여전히 성황이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특히, 호텔업계의 주력 사업인 면세는 ‘다이커(보따리상)’와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회복 미비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반면 호텔 부문은 일본·대만 등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호텔신라의 전체 매출에서 면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0%에서 82.9%로 줄어들었으나, 호텔·레저 부문 영업비중은 13.3%에서 19.1%로 확대됐다.

다만, 최근 제주도를 찾는 국내 관광객이 줄어들어 제주 호텔들이 경영난을 겪는 추세이다. 그런 만큼, 호텔신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색과 문화를 살려 관광과 접목하는 다양한 상품 패키지를 개발해 예비 관광객들의 이목을 끄는 전략을 내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호텔신라는 국내 세종시와 전주, 해외 미국로스앤젤레스(LA)에도 북미 첫 호텔을 지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잇따른 실적악화에...건설업계 수장 ‘칼바람’

신세계건설, 정두영 경질 후 후임에 허병훈·포스코이앤씨도 전중선 선임
GS 허윤홍·태영 윤세영 등 오너일가, 분위기 타개 위해 정면돌파 선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수장들이 ‘수난 시대’를 맞고 있다. 건축 경영과 실적 확보를 위해 기존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신세계건설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일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영업본부장과 영업 담당을 전격 경질했다. 불과 10일 전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발탁했다. 허 신임 대표이사는 1962년생으로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 삼성물산 재무담당과 미주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역임한 재무통이다.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만 1878억원에 달했다. 이는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의 원인이 됐다. 당분간 공격적 경영 대신 건축·구조조정을 통해 내실을 기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도 포스코 그룹자원의 인사교체에 따라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대표로 지난달 22일 취임했다. 전 대표는 포스코스틸리온 사장,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 등을 거친 ‘재무·전략통’으

로 그룹내에서 인정 받아왔다. 포스코이앤씨도 전 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지나치게 공격적인 경영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2021년 5.3%였던 영업이익률이 2022년 3.3%, 지난해 2.0%로 매년 떨어졌다. 전 사장은 최근 부임 이후 여의도 한양을 통해 첫 수주전에 나섰다. 석파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업계에선 전 사장의 건설업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수주전에서 운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DL이앤씨도 최근 마창민 대표이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마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 10여 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차기 대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이 워크아웃 직전인 지난해 12월 경영에 복귀했고, 29일 지주회사 전환과 건설사업부문 인적분할로 재상장한 DL이앤씨의 영업이익은 2021년 9572억원, 2022년 4969억원, 지난해 3306억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던 것도 사임의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후 DL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지난해 8월까지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로 인해 마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수장을 교체하며 새판 짜기에 나서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재임 기간 이해육 회장과 함께 국회에 연이어 소환된 바 있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오너 일가가 경영 전면에 나선 경우도 있다. 허정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오너가 4세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지난해 11월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뒤 올해 3월 말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이 워크아웃 직전인 지난해 12월 경영에 복귀했고, 29일 지주회사 전환과 건설사업부문 인적분할로 재상장한 DL이앤씨의 영업이익은 2021년 9572억원, 2022년 4969억원, 지난해 3306억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던 것도 사임의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후 DL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지난해 8월까지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로 인해 마 대표는

이 밖에 진흥기업·HJ중공업·BS산업·KCC건설 등도 최근 수장을 교체했다. 효성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김태균 부사장이 신임 대표로 올랐다. 그는 1990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후 주택부문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아 온 전문가다. HJ중공업에선 김완석 사장이 새 대표로 취임했다. 김 사장은 1988년 동부건설에 입사해 토목사업 부문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BS산업은 김만겸 전(前) 한화건설 개발사업본부 부사장을 신규 대표로 영입했으며 KCC건설은 지난해 물러났던 심광주 전 부사장을 다시 대표로 불러들였다. 이들 중견 건설사들은 수장 교체를 통해 주택, 개발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수장을 교체를 통해 위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포스코이앤씨, 노량진1구역에 하이엔드급 아파트 제안
3.3㎡당 공사비 730만원 제안...동작구 최초 ‘오티에르’ 브랜드 도입 제시

서울 노량진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노량진1구역’에 단독 입찰한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에 오티에르 동작을 제안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노량진1구역재개발사업의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조합에 동작구 최초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동작’을 제안했다. 조합은 이날 27일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타 정비구역보다 우수한 특화설계에 개성된 서울시 대안설계 기준을 준수한 범위내에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설계와 고급 마감재를 다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 지출을 줄여 세대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동작구 최고 분양가로 분양해 수입



노량진1구역 오티에르 동작 조합도.

을 높일 수 있도록 아파트 골든타임 분양제와 상가 후분양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고급민 시대에 이차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1년간 조합 사업비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동시에 1년간 물가인상없이 공사비 지급을 유예한다.

총 공사비 약 1조 1000억원, 3.3㎡당 730만원의 확정 공사비를 제안함과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이 책정한 사업시행인가 기준 사업비의 2배 이상인 8200억원 한도로 책임 조달도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에 걸맞게 노량진1구역을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30~40대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실수요 늘گا

청약제도, 신혼부부·2자녀·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청약 수요가 다시 분양시장에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아파트 매매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 1182건으로 집계됐다. 상위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3040세대로 각각 10만9529건, 10만6272건을 기록했다.

전체 거래량의 52.40% (21만5,801건)

를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3040세대는 이번 개편안 적용에 따라 출산 관련 특별공급(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에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이 43.0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25~29세) 21.4명, 40대 초반(40~44세) 7.9명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3040세대 실수요자가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를 고를 때 아이 키우는데 적합한 환경을 최종점으로 두는 이들 수요를 잡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특화시설을 갖춘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LH, 2조원대 PF 토지 매입 착수...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착공 실패 건설사 개발 토지 매입
건설사 채무 즉시 상환...상화 기대
“공공기관 토지 비축 긍정효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로 착공·분양에 실패한 건설사들의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계는 대한영이다. 하지만 특정 민간 분야의 부실을 공공이 떠안아주는 방식에 대한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지원에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이 공급되며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토지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번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2조원(매입 1조원, 매입 회약 1조원) 규모로 매입을 진행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에 따라 건설사들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이며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업이 제시한 기준 가격(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 공사지가) 대비 매각회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 상환용으로만 지급되며,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LH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브릿지 상태에서 힘든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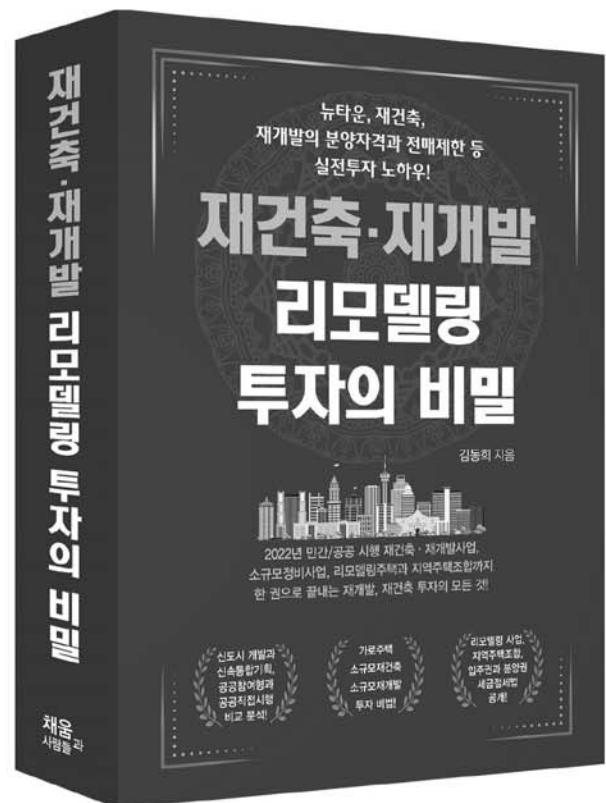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견 및 지방 건설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토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금융기관들도 채권의 조기회수 및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지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는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정부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비축하게 되면 향후 활용 방향 또한 다양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5@ekn.kr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공공직접시행, 소규모주택, 리모델링, 지역주택 등을 한 권으로 알기 쉽게 기술한 책!



김동희 지음 | 736쪽 | 값 50,000원

- 신도시개발, 광역의 재개발 핵심정보의 1단계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각 단계별 실천투자 비법!
- 재건축·재개발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
- 분양권자와 현금청산자 중 누가 더 성공할까?
- 분양권 전매와 대당청 제한, 분양권상한제 등의 핵심 정리
- 재건축사업에서 수익분석과 우량한 물건에 투자하기!
- 재개발에서 분양자격과 현금청산자를 판단하는 방법
- 성공 사례로 배우는 재개발 실천투자 이야기!
- 단독주택 재건축에서 분양자격 유무와 실천투자 비법!
-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분양자격과 각 사업의 전망!
- 서울시 신촌통합기획, 공공참여형과 공공직접시행 투자 실무
- 주택 청약과 당청 후 전매와 대당청 금지, 분양가상한제 등
-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진행절차와 실천투자 포인트
- 지역주택조합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성공한다!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절세방법
- 재건축·재개발 대상 물건에서 계약서 작성 노하우!



김동희 지음 | 560쪽 | 값 3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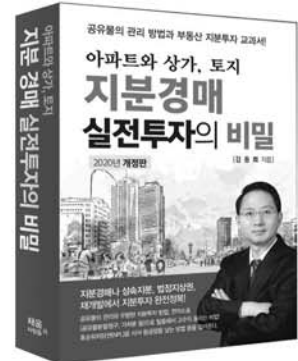
김동희 지음 | 936쪽 | 값 50,000원



김동희 지음 | 400쪽 | 값 24,000원



김동희 지음 | 592쪽 | 값 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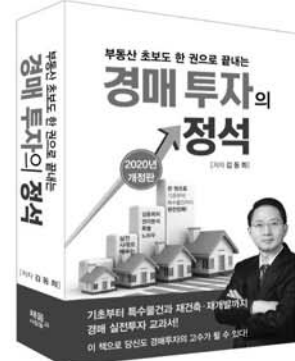
김동희 지음 | 640쪽 | 값 38,000원



김동희 지음 | 424쪽 | 값 29,000원



김동희 지음 | 616쪽 | 값 35,000원



김동희 지음 | 808쪽 | 값 38,000원

부동산채움tv(유튜브 채널) 시청과 교육강좌 안내(김동희부사모 네이버카페)

1. 최근 인기동영상 “임대차3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시청(부동산채움tv).
2. [3월 16일 개강] 민간/공공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과 리모델링 투자 실무반
3. [2월 28일 개강] 경매 권리분석과 실천투자 종합 교육과정
4. [3월 3일 개강] 경매와 공매 실천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실무과정

채움과 사람들

출판 문의·교육강좌 및 도서구입 문의 02)534-4112~3

* 온라인강의 홈페이지 : <https://kdh114.com>

ENERGY INDEX (2일)		
원유 (달러/배럴)		
브렌트	▲+1.50	88.92
두바이	▲+2.41	88.79
광물		
금 (달러/온스)	▲+29.23	2280.67
은 (센트/온스)	▲+0.85	25.92
동 (센트/파운드)	▲+2.20	407.05
납 (달러/톤)	▼-37.43	1986.49
아연 (달러/톤)	▲+36.94	2431.05
SAMSUNG 삼성선물 거래문의: 02-3707-3699		

“콘텐츠싱보일러로 지구 지키세요”
경동나비엔 ‘친환경 지원금’ 캠페인

경동나비엔이 ‘나비엔 친환경 지원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동나비엔은 친환경 소비 진작을 위해 콘텐츠싱보일러 ‘나비엔 콘텐츠싱ON AI’ 구매 시 10만원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동나비엔측은 일반 가정에도 지급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콘텐츠싱보일러 교체 지원금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축소됨에 따라 늘어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캠페인은 에너지와 온수 사용량을 절감하는 ‘나비엔 콘텐츠싱ON AI(NCB753/NCB553)’ 구매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경동나비엔 공식 온라인 플랫폼 ‘나비엔 하우스’ 이벤트 페이지 내에 ‘10만원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비엔 하우스’ 마이페이지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나비엔 콘텐츠싱ON AI ‘10만원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 쿠폰은 가까운 경동나비엔 대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나비엔 콘텐츠싱ON AI는 빠른 온수 공급을 통해 온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낭비되던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녹색기술’ 인증까지 받은 이 기능은 ‘온수레디시스템’이다. 쿼터튼을 누르면 10초 이내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 4인 가족 기준 연간 20에 해당하는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4인 가구의 한 달치 물 사용량에 해당한다. 나비엔 콘텐츠싱ON AI가 100만대만 보급돼도 연간 2000만에 달하는 물을 아낄 수 있다. 나비엔 콘텐츠싱ON AI는 콘텐츠싱보일러 특유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 효과도 탁월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콘텐츠싱보일러 사용 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87%, 19%, 70%까지 저감할 수 있다. 92% 이상의 높은 에너지 효율로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28.4%까지 가스 사용량을 절감한다. 절감액은 연간 약 44만원 수준이다.

또한, 미세한 온도 제어를 통해 여름철 미온수를 사용할 때도 보일러가 꺼짐과 켜짐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소모되는 가스량을 줄일 수 있다. 나비엔 콘텐츠싱ON AI는 이러한 친환경성 덕분에 지난해 ‘녹색제품’ 인증과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을 받았다.

나비엔 콘텐츠싱ON AI는 편리한 온수 기능과 AI 기술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터보팝프’가 적용돼 10분 기준 최대 6리터까지 유량이 증가해 넉넉하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믹싱밸브’를 통해 집안 여러 곳에서 온수를 사용하거나, 온수를 잠갔다 켜더라도 온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AI가 온수 사용 시간을 스스로 학습해 사용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자동으로 온수를 제공하는 ‘빠른온수스마트 운전 기능’도 탑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집단에너지, 전력수급계획 이탈땐 사업허가 막힌다

산업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다음달 8일까지 사업자 의견 수렴
“집단에너지 허가신청, 전력수급계획상 용량 초과땐 사업자 선별”
집단에너지 10년간 63.9% 성장…발전량 비중 전체의 9.5% 차지

앞으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시 정부 전력수급계획을 벗어나면 사업허가 취득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전력수급계획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전과는 전혀 다른 사업환경에 처해진단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증가로 전력수급 불안정이 커지자 집단에너지사업도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부는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했다.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이 전력수급

계획상의 계획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된 설비용량 내에서 열 공급의 시급성, 계통안정성 및 전력수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사업허가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허가신청서 상의 허가처리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정된 전력수급 계획 설비 잔여용량을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전력망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올해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단에나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작업은 전기분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등 당초 열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남은 열에너지를 활용,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 구조다.

전력시장에서도 열병합발전소는 다른 석탄, 원자력 발전소 등 중앙급발전 전기와 달리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 중앙급발전기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거래소로부터 통제를 받는 발

전기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전력수급 안정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봄철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자 오는 6월 2일까지를 전력계통 안정화기간으로 정하고, 여름과 겨울에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마련하는 등 사

경유 혼합율 상승…바이오연료 시장 ‘판 커진다’

올 수송용 경유 혼합율 4%로 상승
정부, 2030년 5%→8% 상향 계획
2025년부터 바이오선박유 도입
정유사 “원료 확보 위해 해외진출”



2023년 9월 GS칼텍스가 바이오선박유 실증사업을 위해 HMM 선박에 바이오선박유를 첫 주입하고 있다.

지만, 그래도 바이오연료 시장의 미래는 밝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감축해야 한다. 이에 비해 현재 전체 보급차량 중에 무공해차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기존 차량을 이용한 탄소 감축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차량뿐만 아니라 수소와 전기화가 힘든 선박과 항공 연료에도 바이오연료가 사용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GS칼텍스가 HMM 선박과 대한항공 비행기에 각각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를 공급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지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선박유부터 빠르게 2025년 실제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바이오연료 수요가 2022년 1600억리터(ℓ)에서 2027년까지 기준전망으로는 1900억ℓ, 가속화전망으로는 2400억ℓ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시장이 커지면서 정유사도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을 통해 작년 3월 중국 바이오연료업체 진샹에 투자 후, 10월에는 컨소시엄을 통해 국내 업체 대경오엔티를 100% 인수했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바이오원료 정제시설을 건설해 2025년 2분기부터 연간 50만톤의 바이오원료 및 식용유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100% 자회사 GS바이오를 통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 연간 13만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유 4사는 올해 1월 24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친환경 연료에 총 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유업체의 바이오연료 시장 본격 진출로 기존 사업자인 이맥솔루션, SK에코프라이م, 애경케미칼, 제이씨케미칼, D S단석 등은 더욱 치열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작년 7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시장 동향과 전망’ 이슈보고서에서 “한국 바이오연료 산업의 원료 국산화가 현실에 현재 약 30%대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국내외 원료 공급망 구축 필요성이 더욱 높다”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폐식용유 및 폐유 처리업체 등 원료 생산업체에 대한 직접투자나 인수합병(M&A) 기회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병호 기자 chybyh@ekn.kr

스마트그리드 ‘전력 신산업’ 미래 이끌어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개최
전력 생산·소비 분산 핵심 인프라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 더해
공급자·소비자 실시간 정보 교환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을 앞둔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인프라 등 핵심 산업 인프라 기술개발과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 주목된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시스템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이 스마트그리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이다.

최남호 2차관은 3일 코엑스에서 개막한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KSGE) 2024’에 참석,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그리드 기반 위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더해져 전력신산업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력신산업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

실상 1년 내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집단에너지도 이 같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정부 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이미 전력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전기를 공급 중인 집단에너지 설비의 총 용량은 1만4912메가와트(MW)에 이른다. 1000MW 원자력 발전설비 14개에 달하는 규모다.

집단에너지 설비 총 용량은 지난 2012 9095MW로 최근 10년간 63.9%(5817MW)나 늘었다.

지난해 집단에너지 총 발전량은 5만 6599기가와트시(GWh)로 국내총발전량 59만3949GWh의 9.5%에 달한다.

이번 정부 계획에 대해 한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이 전기본 통제를 받는 일이 결코 반가운 소식은 결코 아니다”며 “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남호 산업부 2차관(왼쪽)과 김동철 한전 사장(왼쪽 두번째)가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KSGE) 2024’에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

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차관은 추사 후 여러 기업들의 전시관을 돌며 신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하는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KSGE) 2024’는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신산업분야 신기술, 제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전시회로 서울 코엑스에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전력신산업, 미래 에너지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분산에너지산업전,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전, 전기차충전인프라산업전 등 세 개의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분산에너지산업전’에서는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분산특구, 통합발전소, 마이크로그리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나주, 울산, 제주 등 지자체는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의지를 담은 홍보관을 마련했다. 전지성 기자 jis@ekn.kr

위기의 석유화학, 경쟁력강화 협의체 출범

산업부, 석화업계와 간담회 개최
정밀화학 및 친환경 전환 필요
나프타 관세면제 연장·사업 지원

작년 석유화학 수출액이 16% 감소하는 등 역대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으로 구성된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3일 경쟁성 1차관 주재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기업은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이다.

산업부는 간담회를 통해 최근 석유화학 업황과 수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 석유화학산업

이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범용제품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고부가 정밀화학 및 친환경 제품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9% 감소했다. 또한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율은 전년 대비 7.1%포인트 감소했다.

강경성 차관은 “석유화학산업은 해당 업종을 넘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타 주력산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핵심 기반 산업인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한 몸이 되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원료인 나프타 관세면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제세당국과 협의하고, 에쓰오일이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인 사한프로젝트 등 석유화학 대형 프로젝트의 조기 준공을 투자지원 전담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호 기자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환경부와 가나 상하수도 기반 시설 개선 정책·제도·기술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녹색산업 수출·수주액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 아래 각국에서 ‘세일즈 외교’를 벌이고 있으며 가나도 그 대상 중 하나다.

이원희 기자

환경산업기술원, 가나에 진출 거점 마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아프리카 가나에 사무소를 열고 국내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기술원은 3일 가나 아크라에 아프리카 거점 역할을 할 사무소를 연다고 밝혔다. 가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 중 하나로 광물이 풍부하고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돼 성장 잠재력

이 큰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폐기물 에너지화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재생에너지 확대에 의지가 있어 한국과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기대된다.

기술원은 2010년 가나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2011년 제피 마을 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2023년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바이든, ‘경합주 열세·유가 상승’ 속탄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7% 상승한 배럴당 85.1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일 대비 1.7%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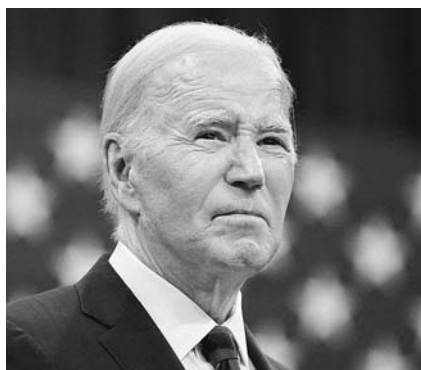
두 선물가격 모두 증가 기준으로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 또한 고공행진하고 있다. 미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현재 미국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갤런당 3.535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반동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적이다. 미국 유권자들이 생활비 문제 등 경제에 불만을 가지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를 겨냥해 이날 미시간주 유세 현장에서 “혹시 모를 까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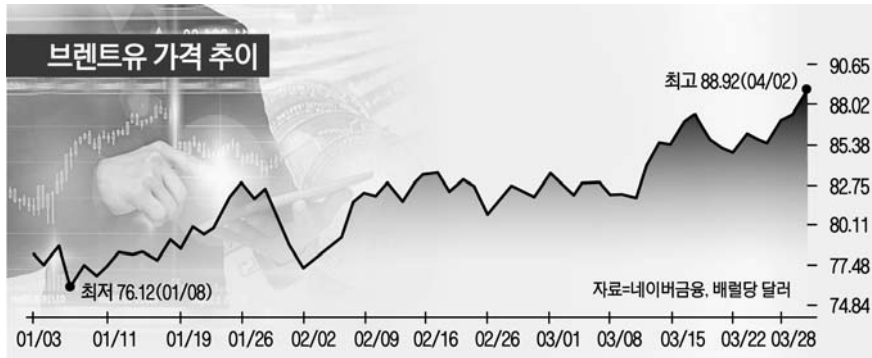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경합주 젊은 유권자 지지율 40%…트럼프는 47%로 앞서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국제유가도 급등…경제 성과 공세 치명적
유가 지속적 상승엔 인플레이션 반동 자극…거센 역풍 맞을수도



그래픽=김배티 기자 seuk22@ekn.kr

고 강조했다.

최근 유가가 오르고 있는 배경엔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도 있지만 수요회복과 공급축소가 원유시장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 드라이브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2분기에

도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OPEC+는 지난달 하루 2686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OPEC와 그 동맹국들의 지속적 인 감산에 브렌트유가 이날 89달러까지 오르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유가 급등에 따른 바이든 대통령의 위험은 더 커졌으며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 일자리, 이민 등에 불만을 표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타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실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를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는 유권자 비중이 2020년 대선 당시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커졌다.

특히 18~29세 젊은층의 비중이 2020년 11%에서 올해 47%로 네 배 넘게 확대됐고 30~49세 사이에서도 비중이 18%에서 43%로 증가했다. 50~64세, 65세 이상도 비중이 각각 15%→28%, 11%→19%로 늘어났다.

이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모닝컨설팅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18~34세 유권자 지지율은 47%로, 40%를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호주 커먼웰스은행(CBA)의 비벡 다르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는 실망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은 향후 75~80달러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원유 옵션시장 트레이더들은 유가 추가 상승에 더욱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3일(현지시간) 25년래 가장 강력한 규모 7.4 강진이 강타한 대만의 화롄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건물이 보인다. 이날 대만 동부 화롄(花蓮) 시 남동쪽 7km 지점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AP=연합뉴스

대만, 25년만에 7.4 강진…사상자 속출

사상자 최소 700명 넘어…피해 늘듯
TSMC 등 반도체 생산시설은 안전

3일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MSC는 애초 지진의 규모를 7.3으로 밝혔다가 7.4로 수정했다.

진원의 깊이는 20km로,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명의 도시 화롄(花蓮)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에는 규모 6.5의 여진이 이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규모를 7.4라고 밝혔지만, 진원의 깊이는 34.8km라고 전했다.

일본과 중국 기상 당국은 각각 규모 7.5, 규모 7.3으로 관측했다.

대만 당국은 규모가 7.2되면서 이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약 2400명이 숨진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지진 이후 가장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진으로 7명이 숨지고 최소 70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물 약 100채가 붕괴되면서 77명 이상은 전해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현지 방송사들은 지진으로 건물 두 채가 무너졌고, 무너진 건물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는 속보를 앞다퉈 내보냈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건물이 무너져 주차된 오토바이들이 깔린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방이 크게 흔들리고 물건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도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였다. 대만 당국은 원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력망도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관심이 쏠렸던 반도체 업계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이날 지진 이후 성명을 내고 “TSMC 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에서 회사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번 지진의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만 2위의 파운드리업체인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는 신주 과학단지와 타이난(臺南)에 있는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췄으며, 직원들도 대피시켰다.

DRAM 전체 생산능력의 60%가 대만인 마이크론의 경우 모든 직원들이 안전하다며 가동 및 공급망을 파악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대만 증시 또한 하락폭이 제한됐다. 이날 대만 가권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2시 6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44% 하락한 2만 377.37을 보였다. 오전에는 최대 1% 가까이 하락했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은 특히 반도체와 관련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TSMC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89% 하락한 783대만달러를 보였다. 오전에는 1.4% 가까이 떨어졌다.

한편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평롄(朱鳳蓮)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중국) 대륙은 큰 우려를 표하며 이번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대만 동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GE, ‘헬스케어·에어로스페이스·베르노바’로 새 출발

미국 산업 아이콘 분할 마무리
에어로·베르노바 증시 첫 거래

미국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이 2일(현지시간) 두 회사로 갈라지면서 한때 막강했던 산업 아이콘의 분할이 완료됐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GE의 해체가 완료됐으며 이 업체가 한때 전형적인 미국 가정들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만물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GE는 TV에 다수의 부품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전구와 가전제품, 전기, 심지어 서버브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까지 제공했다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GE는 1892년 토머스 에디슨에 의해 설립됐고, 잭 웰치가 최고

경영자(CEO)로 있던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성장했다.

웰치는 한 때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는 ‘문어발 확장’ 등으로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GE는 금세기 들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안겨준, 그리고 시의적절하지 못한 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비대한 대기업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정리하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추락하는 주가를 지탱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 나섰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수백억 달러를 쓴 것이다.

이 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2018년에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서 제외됐다. 이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GE는 원년 멤버였다.

2018년 CEO로 임명된 래리 컵트는 결국 부채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많은 사업부의 분사나 매각에 나섰다.

회사는 그의 취임 이전에 이미 NBC 방송의 잔여 지분 49%를 매각했고, 가전 사업부를 중국 하이얼에 팔아넘긴 상태였다.

컵트 CEO는 2020년에는 회사 탄생의 상징 중 하나였던 전구 사업부도 팔았다.

항공기 임대와 같은 다른 사업들도 경쟁업체에 매각되면서, 한때 주요 역할을 담당한 금융 부문인 GE 캐피탈도 결정타를 맞았다.

굿네이버스로
Good Neighbors-ro

굿네이버스

평범한 일상에서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로
오늘도 우리는,
**굿네이버스로
향합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 이계인 대표 위촉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사진)를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제통상위원회는 대한상의 13개 위원회 중 하나다. 지난 2003년 국제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에 국제통상위원회로 개편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상의회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00여개 국가의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에너지, 철강, 식량,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에 힘쓰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상사의 역할을 넘어 글로벌 트레이딩의 모든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며 한국 수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신임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대외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통상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만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등 주요국의 수출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본과 제4경제블록 추진을 모색하는 등 우리 기업과 기관들의 대외경제 체널로서 역할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통상 민간 협의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현우 기자

한양대, 최첨단 반도체 실습 클린룸 개소

SK하이닉스 교육용 장비 구축…우수한 미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2일 한양대 푸틴테크센터에서 열린 ‘반도체공학과 최첨단 반도체 공정실습 클린룸’ 개소식에 참가한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왼쪽 여덟번째)과 SK하이닉스 김동섭 대표협력 사장(왼쪽 아홉번째)이 양측 관계자,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는 2일 대학 푸틴테크센터(FTC)에 반도체공학과와 ‘최첨단 반도체 공정실습 클린룸’을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문을 연 ‘최첨단반도체 공정실습 클린룸’은 SK하이닉스(대표이사 사장 박노정)의 협력을 받아 조성된 반도체 공정라인 수준의 청정도를 갖춘 실습공간이다.

한양대에 따르면, 클린룸은 대학 최고 수준의 청정도 수준(클래스10)을 자랑하며, 12인치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학교에서 확보한 430여 규모의 반도체 공정 인프라와 SK하이닉스의 교육용 장비구축 투자의 산물이다.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의 반도체 소자 및 공정 관련 실습교육공간으로 활용되며, 우수한 미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 거점 공간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한양대 이기정 총장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반도체 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공정실습 클린룸이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김동섭 대표협력 사장은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한양대학교의 현장 맞춤형 반도체 인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난해 SK하이닉스와 협약을 통해 신설된 계약학과로, 올해 40명을 첫 선발해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반도체 소자 및 공정 설계 △회로설계 및 현장 연계형 실무수업 등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남양주시 공고 제2024-144호		
보상계획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 화도2-4호선) 개설공사를 위한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도시계획도로(소로 화도2-4호선)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남양주시청(도시계획과)		
3. 공고(열람) 기간 : 2024. 04. 04. ~ 2024. 04. 18. (15일간)		
4. 보상대상 편입 토지 : 세부목록 별지내역 열람		
가. 대상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를 마석우리 290-5번지 외 5필지		
나. 토지 편입내역		
구 분	소재지	지 번
토 지	화도를 마석우리	288-4, 288-8, 290-1, 290-4, 290-5, 291-3
※ 용지도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031-590-8337)에 비치하며, 공고기간 중 세부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본 위 공고기간 내에 문서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계획		
가. 보상 시기 : 감정평가 시행 이후(보상대상 소진시 협의신청 순서대로 보상)		
나. 감정평가사 추천 : 열람공고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다. 보상금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선정		
라. 보상 방법 : 소유자별 협의보상		
마.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에 의한 보상금액 조건에 따라 지급		
바.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 선정 → 손실보상협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시·도지사 1인을 추천하며 토지소유자도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수량)이 변경(편입 제외 및 포함)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에 관하여는 본 공고의 소유자 수 및 면적 기준에 따릅니다.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대하여는 개별 우편통지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8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4일		
남 양 주 시 장		

호암재단, 올해 ‘삼성호암상’ 수상자 발표

혜란 다윈·故 남세우·이수인·한강씨 등 6명

호암재단이 3일 “2024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수상자는 △과학 화학·생명과학부문 혜란 다윈 미국 뉴욕대 교수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고(故) 남세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 △공과학상 이수인 미국 워싱턴대 교수 △의학상 피터 박 미국 하버드의대 교수 △예술상 한강 소설가 △사회봉사상 제라딘 라이언 수녀 등 6명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5월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국내의 저명 학자 및 전문가 46명이 참여한 심사위원회 및 65명의 외국인 석학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4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는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수상자가 나왔다. 여성이 공학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부문에서는 전통적 기초 과학 분야 이외에도 최근 글로벌 IT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면서 이를 근간으로 새롭고 획기적인 연구 결과물을 낸 세계적인 연구자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예술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공감을 얻으며 순수 한국문학의 지력을 증명한 소설가, 사회봉사부문에서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평생을 장애인들의 육체와 영혼의 치유에 헌신한 인사 등이 뽑혔다.

혜란 다윈 박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이민자의 자녀다. 전세계에서 매년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결핵의 발생과 인체 감염 기전을 밝혀온 세계적인 미생물학자다. 인간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혜란 다윈과학상 물리·수학
故 남세우공과학
이수인의학상
피터 박예술상
한강사회봉사상
제라딘 라이어

혜란 다윈, 결핵균 세계 최초 밝혀…감염병 새로운 치료법 제시
남세우, 세계 최고효율 단일광자검출기 개발…양자역학 발전 기여
이수인, ‘설명가능 AI’서 ‘SHAP’ 방법론 개발한 인공지능 전문가
피터박, 생물정보학 세계 선도…한강, 韓 최초 부커상 수상 소설가
제라딘 라이어, 인류애·박애정신 표상…상금 3억원, 시상식 5월31일

등 일반 생물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분해 시스템이 결핵균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으며 결핵을 포함한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남세우 박사는 세계 최고 효율의 단일광자 검출기를 개발해 양자역학 분야의 오랜 논쟁이었던 ‘벨 부등식’의 실험적 위배 증명을 가능케 하는 등 양자역학과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 권위자다. 남 박사가 개발한 검출기는 양자컴퓨터, 우주 암흑물질 탐색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남 박사는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작고했다.

이수인 박사는 인공지능(AI)의 판단 및 예측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말하는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I) 분야에서의 ‘SHAP’ 방법론을 개발해 AI의 신뢰성을 향상시킨 세계적인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다. 이 박사가 개발한 AI 기술은 각종 질병을 예측, 설명하는 AI 시스템 및 질병 치료법 개발 등 의료 분야에서 큰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피터 박 박사는 세포의 방대한 DNA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컴퓨터 분석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질병의 발생 메커니즘을 밝히는 새로운 융합 학문인 생물정보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자다. 박 박사의 분석기술은 전 세계 대학, 병원, 제약회사에서 암을 포함한 질병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인간의 암 유전 정보 지도 제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암의 발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암 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강 소설가는 한국 현대사의 고통과 슬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들을 작가 특유의 날카롭고 섬세한 시선과 독특한 작법으로 치려해 미적 승화의 수준까지 이끌어낸 이시대 최고의 한국 소설가다. 소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 부커상,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상을 수상했다.

제라딘 라이언 수녀는 지난 50여년간 목포지역 장애인과 가족들을 돌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해 온 우리 시대의 인류애와 박애정신의 표상이다. 라이언 수녀는 1975년 한국 입국후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1985년 목포지역 최초의 장애인 복지시설 ‘생명여공동체’ 설립, 1992년 ‘명도복지관’ 개관, 장애인 조기교육, 직업재활, 인식개선 등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펼쳤다.

호암재단은 1991년부터 삼성호암상을 통해 학술·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한국계 인사를 헌정해 왔다. 올해 제 34회 시상까지 총 176명의 수상자들에게 343억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푸바오야, 한국 잊지마!…中 가는길 6천명 ‘눈물 배웅’

푸바오·행복 주는 선물’ 의미처럼
1354일간 사람들에게 즐거움 선사
6000여명 팬들 에버랜드서 배웅
푸바오, 전세기 타고 중국 도착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오가 3일 한국을 떠나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위룽 선수핑 기지에 도착했다.

푸바오는 지난 2020년 7월 20일 용인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엄마 판다로부터 출생한 지 3년 259일(1354일) 만에 한국을 떠났다.

3일 에버랜드에 따르면, 푸바오는 중국 이송을 위해 오전 10시 40분 판다월드에서 나와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은 후 전세기를 타고 중국에 도착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2020년 7월 20일 엄마 아이마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의미처럼 1354일간 수많은 사람

들에게 행복과 즐거움·감동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3일 에버랜드 장미원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푸바오 배웅 행사는 평일 오전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6000여 명의 팬들이 찾아 푸바오의 앞날을 응원했다.

팬들은 울음을 삼키면서도 “푸바오야 잘 가, 행복해야 해”, “푸바오야 사랑해”라고 말하며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푸바오 할부지’로 익히 알려진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가 참석해 이동 차량에 탑승한 푸바오 대신 그간 보내준 팬들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철원 사육사는 “새로운 판생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푸바오를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푸바오를 영원히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푸바오의 중국 이송은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이 소셜미디어(SNS)로 온라인 생중계해 수십만명이 동시 시청하는 등 중국 누리꾼들에게도

화제가 됐다. 특히 강철원 사육사가 지난 2일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푸바오와 동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찬사를 보내며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도 SNS에 올린 영상에서 푸바오를 떠나보내는 한국인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며 푸바오의 성장 과정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푸바오가 머물게 될 쓰촨성 위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貓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에서 멀리 않은 충칭(重慶)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는 푸바오를 환영하는 대형 스크린도 설치됐다. 한편, 에버랜드는 푸바오의 판다월드 출발부터 중국 선수핑 기지 도착까지 모든 과정에 강철원 사육사와 함께해 푸바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 맺은 중국 중앙 TV와의 협약을 통해 유튜브(http://www.youtube.com/@withEverland) 등으로 푸바오의 중국 내 생활 모습도 팬들에게 계속 전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경협 ‘바이바이 플라스틱’
MLB 레전드 박찬호 동참



한국경제인협회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범국민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BBP)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박찬호 선수는 챌린지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10가지 실천 습관을 소개하며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류진 한경협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박찬호 선수를 지목했다. 해당 영상은한경협 유튜브 채널 ‘F KI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현우 기자

SH, 우리銀과 청년주택 공급 확대 ‘맞손’

무주택 청년 위한 주거사다리 확산…고품질 백년주택 공급 힘모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우리은행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SH공사는 지난 2일 우리은행과 ‘SH공사-우리은행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현동 SH공사 사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 공



김현동 SH공사 사장(왼쪽)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현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역세권 개발 등 더 발전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우리은행과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관 협력을 확대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수요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 장학생 모집

7명 선발 1인당 12만달러, 5년 이내 8학기 지원…졸업생 학술·연구모임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이 해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2024학년도 32기 해외박사 장학생’을 선발한다.

3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장학금은 유학 국가와 상관없이 1인당 12만달러다. 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연구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5년 이내 8학기 동안 지원되고 선발 인원은 7명 내외다. 입학을 위한 출국과 졸업 후 귀국시 항공료도 회당 2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해외 우수 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이나 박사과정 입학에 허가 받은 신입생은 오는 23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1·2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6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학생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받는 재단은 졸업생들의 학술·연구모임을 연 2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졸업생간 교류를 돕기 위한 송년 모임도 열고 있다. 해외재학생들 대상으로 현지 교류 모임을 지원하며 장학생간 소통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우진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전남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본격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고흥·보성·진도·신안 등 4개 시군에 총 210가구 건립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에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진도군의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 예정지에서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김영록 도지사의 발표 이후 발 빠르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9개 군이 응모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4개 군에는 단계별로 전남도에 50가구를 공급하고, 진도군의 경우 군비를 더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210가구를 건립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들은 도심지에 위치해 학교 및 보육시설, 판매시설, 주민 편의 시설 등 입주 청년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주요 선정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흥과 보성은 나로우주센터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팜 관련 종사자, 순천대학교의 글로벌30 선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 전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와 신안은 섬 지역 속박형 국내 관광 활성화로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요 증가와 수산업에 위해 귀어하는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도비, 광역소멸 기금 등 2843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최초 거주 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보다 길다. 신

혼부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월 임대료를 1만원만 부담함으로써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 별도 마련을 위해 총 680억원 규모의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오는 7월까지 전남개발공사에 설치해 도민 입장에서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입주 청년의 불편이 없도록 입주단계 상담부터 공공 후 운영관리까지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설 이후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청년 중심의 대도약 전남 행복지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이정진 기자 leeji0537@ekn.kr

충남 당진, ‘캠핑 성지’로 자리매김



충남 당진이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삼교호 캠핑장

왜목마을·삼교호·난지도 야영장
일몰·일출 명소로 캠핑족에 인기

충남 당진이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3월 당진시에 따르면 ‘왜목마을, 삼교호, 난지도’에 위치한 해당 야영장들은 서해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배경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제공과 함께 저렴한 가격과 시원한 바다 배경 덕분에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왜목마을 오토 캠핑장은 해수욕장 옆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또 근처 장고항 수산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전용 산책로를 따라 서해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삼교호 당진 해양 캠핑공원은 탁 트인

바다와 서해대교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인기 있는 야영장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삼교호 관광지는 당진의 대표 관광지. 최근 ‘대관람차 눈부’로 MZ 세대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난지도 국민 여가 캠핑장은 섬에 위치해 있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색다른 캠핑 경험을 할 수 있다. 섬 특유의 여유로움과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움을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박미혜 당진시 관광과장은 “증가하는 야영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야영장 외에도 다양한 매력적인 관광 시설들이 많은 만큼 당진으로의 힐링 여행을 추천했다.

세종=박용현 기자 ad0824@ekn.kr

경북도, 38개社 지식재산 해외진출 돕는다

최대 3년간 지재권 종합컨설팅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올해 60곳 13억5200만원 지원

경상북도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2024년 경상북도 지식재산(IP) 기반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IP 스타기업)’ 사업에 38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IP 스타기업)’ 사업은 기존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이 예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도는 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경북, 경북 북부, 경북 서부)의 현장심사와 대면평가와 같은 면밀한 심사를 거쳐 38개 기업을 2024년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경북지식재산센터에는 포항시 11개, 경주시 2개, 김천시 1개, 영천시 3개, 문경시 1개, 경산시 9개, 의성군 2개, 칠곡군 3개 기업을 선정했다.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 안동시

3개,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 구미시 3개 기업을 선정 결정했다.

올해에는 신규로 선정된 38개 기업과 전년도에 이미 지원 중인 22개의 기업을 포함해 총 60개의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13억5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는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맵(심화/일반)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신규/제단장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브랜드&디자인 융합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등 필요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경상북도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선정된 글로벌 IP 스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아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극대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성남시, 中企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수출신용보증 등 5종 상품 가입
수출대금 미회수 등 리스크 해소

성남시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리스크 해소차원에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분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50개사 내외에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또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금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



성남시청

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한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고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총 105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

경가=송인호 기자 sh131@ekn.kr



대구국제안전전 최신 트렌드 한눈에 국내 유일의 국제 안전전시 ‘제22회 대구국제안전전(DIOPS)’이 3일 엑스코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유명 안전 브랜드와 생산업체가 350개의 부스를 마련 최신 기술과 디자인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또 3000명의 안전사들이 무료 검안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부

부산지방국토청, 국도77호선
고성 동해면 구간 우선 개통



3일 우선개통된 국도 77호선 봉암터널 중점~장항1터널 구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홍목 청)은 ‘국도77호선 고성~동영 국도건설공사’ 18.5km 구간 중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에서 동해면 장좌리를 잇는 3.4km 구간을 3일 오후 3시를 기해 우선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조선특구 산업단지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가 발생해 선형개량 공사를 통해 직선화했다.

이번 우선 개통으로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부터 동해면 장좌리까지 통행시간 50%, 운행거리는 35% 단축돼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다.

국토청은 잔여구간 공사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전 구간 개통시 경남 통영시 광도면 도산리부터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까지 통행시간은 36%, 운행거리는 16% 줄어들어, 차량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김홍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스마트한 도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영남권 도로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강세민 기자 semin3824@ekn.kr

충남도 “143개 사업 일자리 9만개 창출”

충남도는 올해 1조755억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해 15~64세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가 발표한 ‘2024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대책은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기반시설 구축과 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기반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분야별 예산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 4030억원, 일자리 기반시설 구축에 4685억원, 고용서비스에 661억원, 고용장려금에 634억원, 기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에 745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주력산업의 다변화를 통한 미래형 일자리 중점 창출, 베이벨리 메가시티 경제 실현,

2024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수립
예산 1조 투입 고용률 70% 달성
탄소중립·베이벨리 메가시티 등
100년 먹거리 사업에 집중 투자



김태훈 충남도지사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탄소중립 경제 선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

년 먹거리를 책임질 경제 발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립 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기업 발굴·연계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 일자리도 창출한다.

김태훈 충남도지사는 “이러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시범사업과 지역특화비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홍성=박용현 기자

전남도, 희망인재교육국 신설 ‘인재 육성’

전라남도는 인재 육성과 대학 업무 등을 전담할 희망인재교육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설되는 희망인재교육국에는 자치행정국 산하 희망인재육성과와 대학혁신과를 이관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통과를 거쳐 7월 정기인사 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인재 육성 필요성이 대

대학지원체계(RISE) 등 대학 업무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인재교육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의대유치추진TF는 조만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한다. 도는 약사 출신인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이 보건복지국장 겸임이 있는 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학 간 소통 등을 감안해 의대유치추진

TF를 자치행정국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의대유치추진TF(현 인원 7명)의 인원과 기능도 강화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청에서 가장 기획력이 좋은 공무원들을 의대유치추진 TF에 배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도는 또 TF로 운영되는 인구청년정책국을 정식 직제로 개편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광역지자체 실국수(數)를 자율화하기로 함에 따라 인구청년정책국이 정식 직제로 신설된다”고 말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전공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이슈&인사이트
Issue&Insight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22대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 중 하나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다. 이미 6주를 넘어서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병원들은 최소 기능만 운영하고 있고, 수술이 미뤄지고 응급환자들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에서는 진료 자체를 받기 어렵고 수술을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공공의료기관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가 되기 일쑤고, 환자들은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의 거점병원으로 몰려들었다. 덩달아 환자 가족들도 병원 근처에 머물며 환자를 돌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의해 필수 의료분야를 전공한 의사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점차 필수분야 전공자의 수도 줄어들어 수술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놔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반겼고, 필자 주변의 의사 친구들도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론조사에서도 70% 정도가 의대정원 확대에 지

지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왔다. 문제는 증원 규모와 방법,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의대정원을 10년 동안 연 2000명씩 늘리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정책은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상정하고 현재를 바꾸어 가는 일이다. 오랫동안 나름대로 이해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정책을 통해 깨지게 되니 이해관계자의 반발은 당연하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원하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그동안 누려오던 이익을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의 반대의 강도가 새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는데 있다. 또 의대증원의 편익은 국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데 반해 손해는 의사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 의사들,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의료인으로 출발해 평생을 의사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 예비 의료인들, 즉 의과대학생들의 반발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지난 1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기 전까지 대다수 국민은 왜 하필 꼭 2000명이여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었다. 의대 증원의 핵심은 증원 규모, 즉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 의사들이 가도록 만들 수 있느냐였다. 의사들이 지방에 가지 않는 이유는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경제적 보상이 적고 자식을 기르고 문화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필수분야에서 겪어야 할 고생에 비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거기에 의료수요가 급증하는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니 결국 의료개혁은 의대증원보다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앞세워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른 요소들은

거의 잊혀지고 의대 증원만 전면에 나타났고,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커진 것이다.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이 어설프다고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1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 알려진 것을 보면 정부가 실제로는 부단히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외면해 왔다.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의사협회는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는 오만함을 보였고,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 전에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한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다.

이제 국민도 알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대국민 소통과정이 미흡해 정부가 일해 온 과정이 잘 알려지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의료인들의 고집스런 태도가 국민과 상관없이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서 비롯되었고, 오로지 의대증원을 현 상태로 묶어 두거나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6주간 전공의 파업에도 병상을 지킨 의료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지금 오로지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의사들과 전공의, 예비 의료인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의사가 되어도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도 숫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대안인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호프크라테스 선생을 유념해 의사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인가’를 다시 헤아려보기를 바란다. 국민을 떠나 자신의 돈벌이만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내 몸을 맡기고 목숨을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월세 급등 빌라시장, 맞춤형 대책 나와야

기자의 눈

김다니엘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가 지속되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빌라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전세 기피 현상에 수요가 몰리고 반전세화까지 겹치면서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 주거 비용을 아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빌라 거주 서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실을 살펴보자. 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의 월세화 현상이 심각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누계)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7%로 집계됐다. 전국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4.6%였으나 지난해 66%, 올해는 70%

대로 급증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올해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77.5%로, 수도권(67.8%) 및 서울(69.7%)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같은 빌라 월세화 심화 현상은 우선 전세사기의 여파로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급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남 기준 서울의 월세 매물은 1만8548건으로 1년 전(2만4886건)에 비해 25.5% 감소했으며 경기(-26%)와 인천(-37.4%)의 매물 또한 급감했다.

이러자 빌라 월세 금액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2021년 3월 99.9였던 월세가격지수는 올해 102.1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내놓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제도 개편이 월세 급등 현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빌라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춰야하는 상

황이 되자, 전세금을 낮추는 대신 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일명 ‘반전세’ 계약을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첩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 빌라 월세는 올해 1월 923건으로 지난해보다 15.1%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75건, 2021년 225건, 2022년 495건, 2023년 802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900건을 넘겼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시설로 여겨졌던 빌라의 월세가 이처럼 계속 오름세를 보인다면, 이는 향후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아파트 2만5000채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시세 90%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정부가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을 위한 월세 안정화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길 바란다.

글로벌 비전 실종된 기후변화 총선 공약

EE칼럼
Energy&Environment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CSDAP 소장



4·10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과 각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변화는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이 투표할 후보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각 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올해 선거를 치르는 EU를 비롯한 70여개 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 공약은 기후대응기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기후금융,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전담 부서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위 RE100 이슈도 여야 간에 중요한 쟁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이슈의 부각은 중요하고 또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국제적 안목과 비전을 담은 기후변화 공약의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만으로는 하나의 글로벌 기후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IT 제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어느 것이든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보다 국외에서 소비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공약들은 우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국내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기업의 선도적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신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다양한 혜택이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으로 새로운 탄소 통상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투자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 지역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다양한 기업 관련 공약으로 표심을 끌고 오고자 노력하지만 어느 당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탄소 통상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은 내놓지 않는다. RE100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을 내 놓고 있지만, 해외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 석탄에 의존하는 현지 국가의 전력 생산 정책으로 인해서 현지 생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심각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 석탄발전소 저감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공장이 위치한 국가의 석탄발전소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ODA와 국제 정책 공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도국 탄소중립 전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공약이 중요한데 찾아볼 수가 없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외감축결과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온실가스 국외감축 정책은 새로운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없거나 필요한 기술과 재원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ODA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통해 창출되는 해외 일자리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 경험이 많은 중장년층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여야 각당은 글로벌 안목과 비전을 담은 기후변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구에서의 승리는 물론 총선 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국내 차원 논의를 넘어 국제적 안목과 비전에 바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우)04516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5층	발행인 송용희 사장 임정호 편집국장 송영택 인쇄인 박태현												
대표전화 02-850-0114 대표팩스 02-867-0453 광고문의 02-6749-3124 구독문의 02-6749-3125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table><tr><td>· 정치경제부 02-6749-3117</td><td>·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td></tr><tr><td>· 산업부 02-6749-3114</td><td>· 국제뉴스부 02-6749-3173</td></tr><tr><td>· 금융부 02-6749-3172</td><td>· 전국부 02-6749-3119</td></tr><tr><td>· 자본시장부 02-6749-3170</td><td>· 종합편집부 02-6749-3127</td></tr><tr><td>· 유통중기부 02-6749-3147</td><td>·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td></tr><tr><td>·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td><td></td></tr></table>	· 정치경제부 02-6749-3117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 산업부 02-6749-3114	· 국제뉴스부 02-6749-3173	· 금융부 02-6749-3172	· 전국부 02-6749-3119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종합편집부 02-6749-3127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 정치경제부 02-6749-3117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 산업부 02-6749-3114	· 국제뉴스부 02-6749-3173												
· 금융부 02-6749-3172	· 전국부 02-6749-3119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종합편집부 02-6749-3127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table><tr><td>· 1989년 5월 26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td><td>구독료</td></tr><tr><td>·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td><td>월 20,000원 1부 1,000원</td></tr></table>	· 1989년 5월 26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구독료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 20,000원 1부 1,000원								
· 1989년 5월 26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구독료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 20,000원 1부 1,000원												

2024년, AI를 지배할 것인가, AI에 지배당할 것인가?

AI 시대의 생존 전략부터 비즈니스 마케팅의 AI 활용 방향까지 담았다

"2024년은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 보다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인터페이스'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The Last Mile(이용자 사용 편의성)이 극복될 것이다!" - 강정수 (더코어 CSO)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당산의 인구전략은 무엇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New Normal)인가? 변하지 않은 일상(Post Normal)인가?" - 황성연 (닐슨미디어코리아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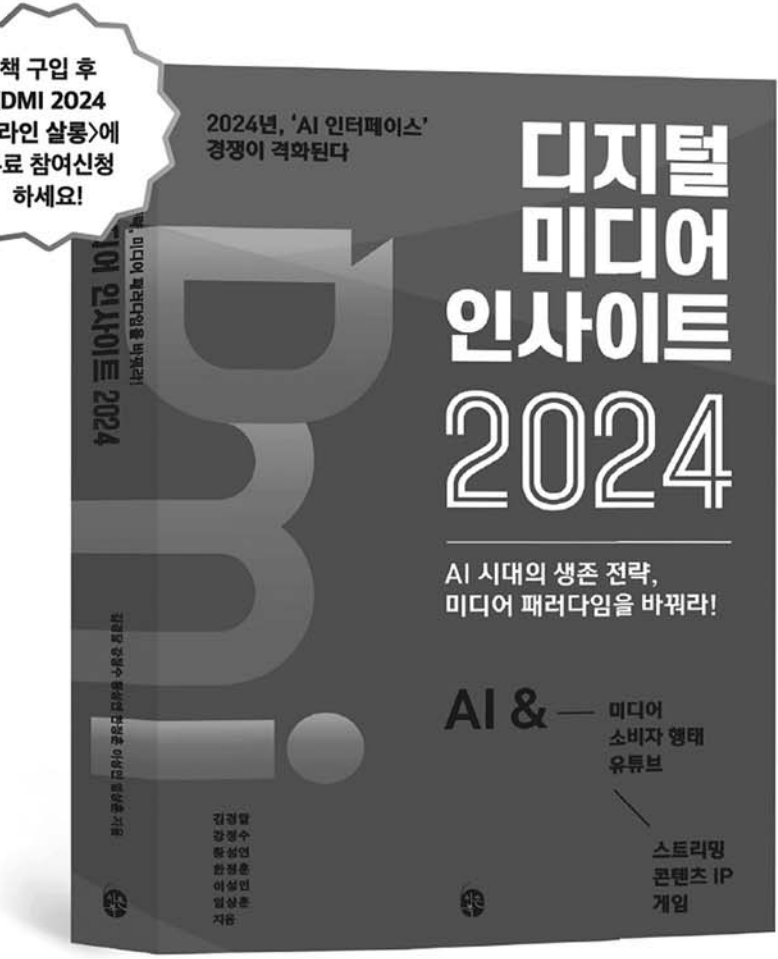
"2024년은 유튜브가 AI를 장착하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본격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AI'와 '숏폼', '커머스'의 트렌드를 앞세운 유튜브는 우리 생활의 기반 플랫폼으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

"2024년은 AI와 방송이 만나는 동시에 스트리밍의 화려한 빈곤이 시작될 것이다. 세상은 스트리밍으로 바뀌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어느 스트리밍도 안심할 수 없다!" - 한정훈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

"체험에 그치는 콘텐츠는 스쳐 지나가지만, 경험이 되는 콘텐츠는 IP가 된다! 사람들은 콘텐츠를 통해 어떤 경험을 쌓아가고 있을까? 이제는 서사 중심의 연계를 넘어 비서사적 경험까지 모두 아우르는 IP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리니지라리코 영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 모바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2024년에 <데이트 더 데이터>와 <P의 거짓>에 이어 스팀과 콘솔 시장에 한국 게임의 경쟁력을 입증할 후속작이 나올 것인가?" - 임상훈 (디스이즈게임 대표)

김경달 강정수 황성연 한정훈 이성민 임상훈 저 | 값 19,000원 | 이은북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2안길 16 삼성빌딩8 4층 | 전화 02-322-1412 | dmicon.com



6인의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와 함께하는 북 컨퍼런스!
생생한 강연을 책으로 만나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1학년이 된 아들에게

늦은 나이에 너를 만났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빠 너를 통해 배웠어

그런 너를 바쁜 엄마 아빠 때문에
아침 일찍 보내고 해질 무렵에 하고 시키는 요즘
아빠는 마음이 참 무거운데

“아빠 얼른 가! 학교 진짜 재밌어~”

씩씩하게 웃는 네 모습을 보면
먹고사는 게 뭐라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날들이 다 추억이 되겠지?

그 시간이 언젠든 아빠는 언제나 널 위해
여기 있을 거다, 등굣길에 잡았던 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네 곁에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늘 봄 같은 우리 아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5개의 거점형 놀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KB금융그룹